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77호 【주체 제25420호】 주체105(2016)년 10월 3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대상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요대상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고 922건설돌격대에 탄원한 재정성 부원 김경임은 세포땅을 사회주의청춘대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대외경제성 산하단위 부원 최학철, 금강지도국 산하단위 기사 김일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달려나가 청춘의 열정과 공민적량심을 아낌없이 바치였으며 공사에 필요한 설비, 자재 등을 지원하였다.

세포지구에 굴지의 축산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불타는 마음안고 평양학생소년궁전 지도교원 정리애는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후방물자들을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함경남도인민병원 기사 리승걸은 돌격대원들의 건강증진과 출판, 축사소독에 필요한 수십대의 성능좋은 소독수제조기를 창안제작하여 지원하는 훌륭한 소행을 발휘하였다.

황해남도물길공사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황해남도체신관리국 파장 리명호는 여러차례 건설장에 찾아가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도 하고 건설자재들도 지원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최경례내분비연구소 연구사 림현철도 물길공사에 절실히 필요한 물자들을 마련하여 건설장에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중앙로동자회관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방직공업관리국 기술준비소 준비원 김설옥은 야간지원직맹돌격대활동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전투원들의 생활에도 뜨거운 정을 기울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전적로작을 오스트리아단체 인터네트에 게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가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 마련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돐, 조선로동당창건 71돐,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90돐에 즈음하여 9월 23일과 24일 도이췰란드 베를린에서 경축집회와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도이췰란드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사소한 로선상착오도 없이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여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선군령도밑에 조선은 올해에만도 세인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련이어 이룩하고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조선이 거두고있는 성과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북부피해복구전투를 최단기간내에 결속하고 승리의 기발을 더욱 높이 휘날릴것이라고 확신한다.

도이췰란드 프랑켄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90년전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지체없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19년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로동당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모심으로써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선군혁명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국방력강화와 경제강국건설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 * *

조선로동당창건 71돐경축 베루정당들의 경축집회가 9월 21일 리마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집회에는 베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베루사회혁명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 지도부성원들과 당원들이 참가하였다.

베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참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혁명적당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창시되였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주석께서는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조선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범접 못하는 수소탄까지 보유한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조선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위대한 수령들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베루사회혁명당 총비서를 비롯한 인사들은 조선로동당창건 71돐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발휘하고있는 영웅성과 불굴의 정신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감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북부전선에서 승전포성을 높이 울려 주체조선의 백승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자

북부전선에서 보내온 소식

피해복구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결사관철의 정신

전력공업성 일군들과 송변전부문의 로동계급 피해지역의 모든 변전소와 송전선 복구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전화위복의 대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사생결단의 전쟁을 선언한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북부전역의 전전선에서 총진군의 포성이 힘차게 울려퍼지는 속에 전력계통복구전투장에서도 련일 눈부신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북부전역에 급파된 전력공업성 일군들과 송변전부문 로동계급은 피해지역의 변전소들과 650여리구간의 송전선들을 모두 성과적으로 복구하였으며 복구전투에 떨쳐나선 모든 단위에 필요한 공사용전력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는 눈부신 위훈을 창조하였다.

또한 전주복구공사는 이미 95%계선을 돌파하였으며 근 1 300리에 달하는 배전선로가 짧은 시일안에 복구되여 배전선공사도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북부전역에서 전력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거두고있는 혁혁한 전투성과로 하여 피해복구전투장마다에서 복구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무산광산 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돌파구가 확고히 열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전력공업성의 책임일군들은 전력계통복구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긴급대책들을 기동성있게 세우며 200일전투의 최전방에 대한 전력공급을 순간도 중단없이 보장하도록 하였다.

송변전관리국을 비롯한 전력공업성의 일군들과 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송배전부의 1 500명에 달하는 기술자, 기능공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즉시 북부전역으로 폭풍치며 달려왔다.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사심없이 동부의 일군들은 작가, 예술인, 경제선동대원들과 함께 주요생산직장들에 나가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집중적으로 벌려 일생산량을 늘이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세멘트생산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정치사업을 벌리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을 내대고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있다.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제일 긴요한 세멘트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증산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련합기업소창모부에서는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앞세우며 생산정상화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최근 련합기업소에서는 2호소성로보수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보수전투에 참가한 로동자, 기술자들은 북부피해복구전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종전같으면 보름이상 걸려야 한다는 소성로보수를 단 5일동안에 끝내고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조종직장, 조합원료직장, 소성직장, 로송직장, 크링카수송직장, 세멘트직장을 비롯한 주요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세멘트증산으로 당을 받들어갈 일념안고 협동생산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매일 맡겨진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세멘트생산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발을 맞추어 원료, 자재보장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순천석회석광산, 점판암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전시생산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북부전역에서 승전포성이 울릴 때까지 증산돌격전을 중단없이 힘차게 벌릴 결의밑에 석회석과 점판암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서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내화물분공장, 주강직장, 단조직장들에서는 북부피해복구전선에 한t의 세멘트라도 더 보내주자고 하면서 매일 많은 량의 내화벽돌과 주물품, 단조품생산을 다그쳐 세멘트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세멘트생산실적은 날이 갈수록 오르고있다. 성과가 오를수록 그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북부전선에 더 많은 세멘트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고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이며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다.》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제일 긴요한것이 세멘트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맡겨진 생산과제를 당에서 정해준 기일안에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소성로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일 세멘트생산계획을 1.3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작가, 예술인, 경제선동대원들과 함께 주요생산직장들에 나가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집중적으로 벌려 일생산량을 늘이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세멘트생산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정치사업을 벌리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을 내대고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있다.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제일 긴요한 세멘트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증산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련합기업소창모부에서는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앞세우며 생산정상화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최근 련합기업소에서는 2호소성로보수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보수전투에 참가한 로동자, 기술자들은 북부피해복구전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종전같으면 보름이상 걸려야 한다는 소성로보수를 단 5일동안에 끝내고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조종직장, 조합원료직장, 소성직장, 로송직장, 크링카수송직장, 세멘트직장을 비롯한 주요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세멘트증산으로 당을 받들어갈 일념안고 협동생산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매일 맡겨진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세멘트생산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발을 맞추어 원료, 자재보장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순천석회석광산, 점판암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전시생산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북부전역에서 승전포성이 울릴 때까지 증산돌격전을 중단없이 힘차게 벌릴 결의밑에 석회석과 점판암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서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내화물분공장, 주강직장, 단조직장들에서는 북부피해복구전선에 한t의 세멘트라도 더 보내주자고 하면서 매일 많은 량의 내화벽돌과 주물품, 단조품생산을 다그쳐 세멘트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세멘트생산실적은 날이 갈수록 오르고있다. 성과가 오를수록 그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최전방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공격전의 불길

회령시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인들 살림집건설공사에서 련일 혁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피끓는 가슴마다에 새기고 회령시피해복구전투장으로 달려온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백두산혁명강군의 기상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날에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수놓아가고있다.

우리의 영웅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지난 9월 19일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내달려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근 1 800세대의 소층, 단층살림집 기초굴착과제를 100% 수행하고 련속 기초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하여 88%계선을 돌파하였다. 이 기간 살림집건설에 리용할 블로크를 160여만장이나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도 이룩하였다.

회령시 오봉지구에서만도 근 1 000세대에 달하는 50여동의 소층살림집들이 자태를 화연히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9월 29일 조선인민군 허상옥소속부대에서 제일먼저 8동의 소층살림집 기초콩크리트치기를 결속한데 이어 10월 1일에는 장춘원소속부대에서도 살림집지상골조공사에 일제히 진입하였다.

력사의 땅 회령시에서 이룩되는 기적적승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불과 물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결사관철하고야마는 당군의 본때와 기질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며 온갖 원쑤들에게 무서운 철퇴를 안기는 우렁찬 진군포성의 메아리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천지개벽을 안아온것처럼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치는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에서 계속 영웅적위훈을 세워나감으로써 당군의 자랑스러운 모습,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합니다.》

건설에 동원된 각 부대의 장병들은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만장약하고 회령시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할 불타는 열의안고 공격속도를 부단히 높이고있다.

건설기재를 더 가져오기 위해 자기의 집을 떨어놓으며 오직 당이 가리킨 붉은 화살표를 따라 북부전선으로 강행군해온 인민군군인들은 선차적인 건설대상인 살림집건설장마다에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련이은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조선인민군 김동춘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전투 첫날의 단 10여시간동안에 8동의 소층살림집 기초굴착을 해제껴 불과 열흘만에 기초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하였다는 놀라운 속도로 공사를 내밀고있다. 이들은 공사에 필요한 모래와 흔석, 목재, 강재 등을 미리 갖추어놓기 위한 작전과 지휘도 동시에 하고있다. 부대의 군인들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만장약하고 집채같은 바위들을 까내여 건설용자갈도 마련하면서 144세대 소층살림집 기초콩크리트치기를 련이어 결속해나가고있다.

조선인민군 김동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제1선참호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높은 공사실적으로 화답해나서고있다. 다른 부대들에 비해 뒤늦게 전투장에 도착한 정황속에서도 이곳 부대장병들은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종전같으면 24시간이상 걸려야 한다던 혼합몰타입을 단 2~3시간동안에 해제끼며 모두가 뛰고 또 뛰고있다. 부대의 지휘관들이 병사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앞제를 메고 달리며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풍세적으로 벌려 철야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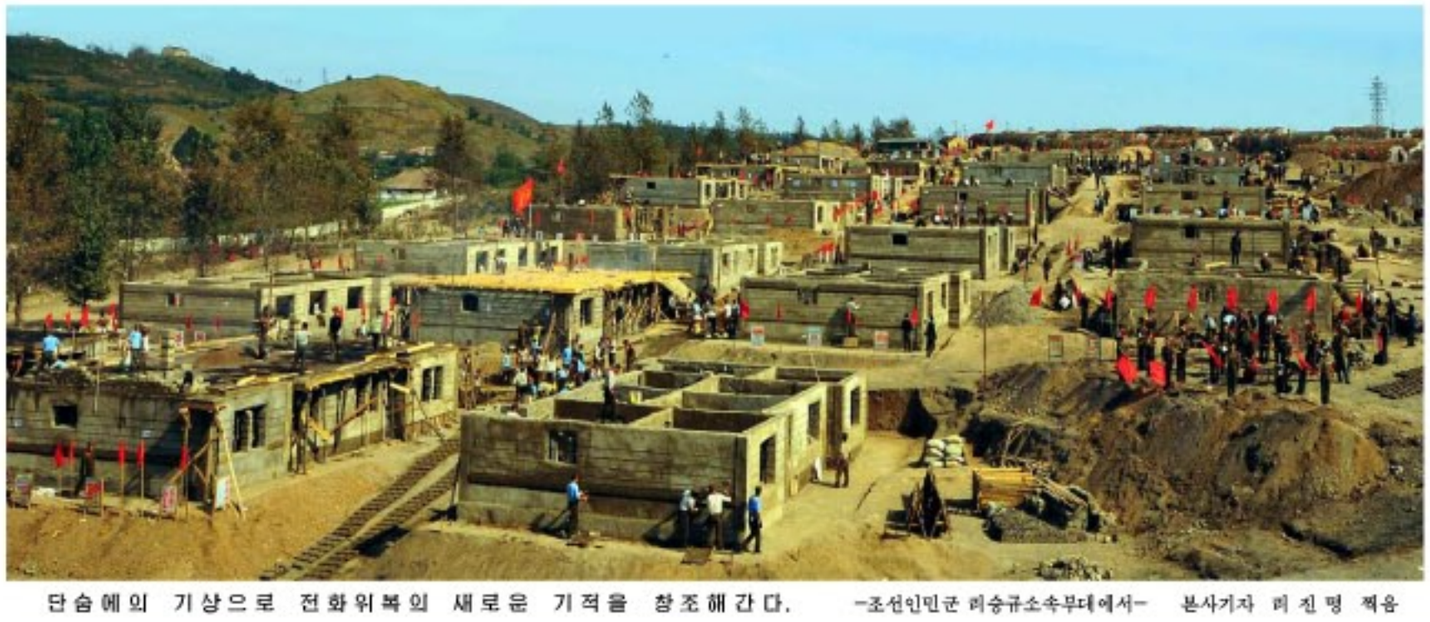
유서깊은 회령땅을 진감하는 혁명가요와 전시가요가 힘차게 울려퍼지는 속에 전투장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조선인민군 허상옥소속부대에서는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 병사들의 혁명열, 투쟁열, 경쟁열을 백배해주고 온 전투장에 혁명적군인정신이 꽉 차넘치게 하고있다. 이곳 부대에서는 근 100명에 달하는 군악대와 예술선전대원들을 전투장의 곳곳에 기동적으로 전개하여 혁명가요와 전시가요를 비롯한 힘있는 노래와 화선선동으로 병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이에 무한히 고무된 부대장병들은 8동의 소층살림집건설을 제일먼저 끝낼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제속혁신, 제속전진, 련속공격을 들이대며 10월 1일현재 살림집 1층골조공사를 결속하였다.

조선인민군 장춘원소속부대, 신봉철소속부대, 안영식소속부대를 비롯한 모든 부대들이 오봉지구와 유선지구, 인계리, 풍산리, 용천리, 계상리, 제하리 등에서 단숨에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며 소층, 단층살림집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력사의 땅 회령시의 살림집건설전투장에서 울려퍼지는 장엄한 진군포성은 총정의 200일전투 주타격방향인 북부피해복구전선의 승리를 위해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현지보도반



단숨에의 기상으로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간다. —조선인민군 리승규소속부대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붉은 기폭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의 당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의 영원한 신념의 상징이고 승리의 기치인 성스러운 우리의 당기.

눈부신 기적으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북부전역을 비롯하여 위대한 당의 부름에 천만산악처럼 무섭게 일떠선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에로 과감히 고무추동하며 뜻깊은 10월 어디서나 우리의 당기가 더 거세차게 휘날린다.

성스러운 우리의 당기,

이 나라 최북단으로부터 분계연선까지 온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대하마냥 북부전역에서의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향하여 격랑쳐흐르는 철의 대오가 그대를 우러러 심장으로 리치는 10월의 찬가는 무엇이던가.

당기여, 그대는 위대한 승리!

승리, 오직 이 한길로만 목숨처달려온데 대한 긍지로 가슴들먹이며 위대한 당을 따라 기어이 안아올 승리를 눈앞에 둔 력사의 시점에서 이 나라의 아들딸들은 그대를 우러르며 이보다 더 적중한 표현이 없음을 심장으로 절감한다.

* *

지난날도 그랬으며 오늘도 그렇고 래일도 반제군사전선은 우리 당과 인민의 존망을 판가리하는 혁명의 기본전선이다.

진보와 정의에 도전하여 자기들보다 잘되는것, 앞서는것, 강대해지는것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남을 짓누르지 않고서는 도대체 생존할수 없는 제국주의자들과 맞서싸워 이긴다는것은 말처럼 헐치 않다.

하지만 우리 혁명은 천번만번의 격렬한 싸움에서 단 한번의 실패도 모른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 붉은기를 끝까지 지킬 억척같은 의지를 떠나 상상할수 없는 승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조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였습니다.》

바라볼수록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투쟁에 한몸바쳐 싸우는 조선혁명가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자욱자욱 피로 물들인 천신의 길을 삼가 정건한 마음으로 더듬어보게 하는 성스러운 우리의 당기,

불멸의 존함 불러보기만 하여도 가슴에서 뜨거운것이 격랑치게 하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한생이 눈물겹게 어려온다.

오늘 우리 조국의 국력을 과시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선에서 큰일을 한 사람들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사는 당중앙위원회 뜨락에서 당기발 휘날리는 청사를 배경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기념사진을 찍는 무상의 영광과 행운을 받아안는다.

그러나 언제부터 당중앙위원회 청사에 붉은 당기가 휘날리게 되였으며 거기에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지는 아마도 다는 모를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게 되시였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지던 그무렵의 어느날이였다.

출근길에 올랐던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본청사 앞마당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모두가 한모습으로 경건히 바라보는 청사지붕우에서 당기발이 펄펄 휘날리고있었던것이다.

거대한 사변을 예고하며 쉼없이 날리는 붉은 당기를 당중앙위원회 뜨락에서 바라보니 누군들 숭엄한 격정에 휩싸이지 않을수 있었으랴.

당기발을 게양하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라는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의 충격은 이를수가 없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기발을 품에 안고 당중앙위원회 계단을 오르실 때 그이의 심장을 불태운 념원은 무엇이였는지, 그 기발을 창공높이 떠위올리시며 그이께서 다지신 맹세와 그 기발과 더불어 바라보신 광활한 미래가 무엇인지 그때는 누구도 미처 알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숨결, 그이의 의지는 이렇듯 성스러운 붉은 당기와 함께 우리 혁명의 참모부에서 온 나라 천만심장에 뜨겁게 흘러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다음날이였다. 한밤을 꼬박 밝혀 집무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 함께 지새운 일군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오시였다.

청신한 대기속에서 휘날리는 당기가 어둠을 밀어내며 선명히 부각되고있었다.

동무들, 저 당기발을 보시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에 넘치신 음성이 새벽공기를 깨치였다.

저 기발은 불바다를 헤치며 간고한 시련의 언덕을 넘어온 기발이라고 서두를 메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일군들의 폐부에 흘러드는 극적인 순간이였다.

우리 당기발의 력사는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혁명의 붉은 기발을 드신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붉은 기발을 드신 때로부터 우리 당의 뿌리도 튼튼히 내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당의 력사는 붉은 기발과 함께 걸어온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력사이다. 우리 당기발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가 그대로 비껴있다. 이제는 우리가 저 붉은 기발을 높이 휘날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붉은기신념을 만장약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년대와 년대를 넘어 조선혁명가들의 신념과 승리의 상징인 붉은기를 장엄히 휘날려온 붉은기수호의 위대한 한생이시였다.

조국수호,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상징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생애의 주소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포성없는 전구, 격전장이였다.

수세기동안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위치에 있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동유럽사회주의가 붕괴된 1990년대는 참으로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다.

여러 나라들의 존망과 직결되는 중대사들이 전세계를 불안과 우려속에 몰아넣고있었다. 1만여km나 떨어져있는 우리 조국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의 마수도 최절정에 이른 때였다. 조선반도에서 3차 세계대전, 세계열핵전쟁의 불을 지르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핵전쟁마차가 미친듯이 질주하였다.

항시적으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핵무력 집결, 끊임없는 각종 도발…

가파로운 최전연의 오솔길을 톺아오르시는 우리 장군님, 야전위장망을 친 지휘소에 거연히 서시여 직접을 료해하시는 장군님,

그 비범한 야전장군의 모습이 모든것을 절망적으로 대하던 온 세계를 광명처럼 밝히고 세계가 새로운 눈으로 본 태양의 모습이였다.

한걸음 옮기는것이 천리를 헤치는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으실 때 위대한 장군님의 피를 끓어번지게 한것은 무엇이였던가.

주체혁명의 새시대는 선군의 기치따라 승승장구하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된다!

이 철의 신념과 강철의 의지로 붉은기수호의 새 력사를 장쾌히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선군, 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변만화하는 오늘의 시대에 주신 붉은기수호의 명쾌하고 완벽한 대답이였다.

붉은 기폭에 있어서 총대는 그 휘날림을 지켜주는 기발대이고 총대에 있어서 붉은 기폭은 정치의 기둥, 혁명의 총대로 되게 하는 사상이다!

기발대가 없이 기폭은 자기의 모양을 가질수 없고 기폭이 없는 기발대는 존재의미가 없다!

력사의 그길에서 붉은기와 총대와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정립하시고 온 나라에 백두산총대바람이 거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승리한 고지우에 붉은기를 제일 선참 휘날리는 기수의 심정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전선을 종횡무진하시며 붉은기수호의 길을 쉬임없이 걸으신 우리 장군님,

오르시는 산정마다에서 선군의 뇌성벽력, 침략자격멸의 선언으로 천지를 진감하신 불세출의 선군령장,

적들을 끝없이 전률케 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겐 서리발용맹이 용솟게 한 천하제일강지의 붉은기수호의 장정,

어느 시대, 어느 장군이 위대한 장군님과 같이 그런 위업있는 기상을 지닌적 있었던가.

이런 출중한 장군과 누구도 감히 맞설념을 할수 없었다.

붉은기수호의지를 만장약한 장군, 신념과 승리를 천품으로 타고나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셨기에 우리는 당과 혁명, 우리의 사상과 제도, 목숨보다 귀중한 존엄을 지키였다. 오직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였다.

지구상 그 어느 지역에서나 질주하던 미제의 핵전쟁마차가 조선의 문턱만은 넘지 못하지 않았던가.

이 기적적승리를 가리켜 세계는 조선의 승리가 가지는 무게는 결코 간단한것이 아니라고 평한다. 인류가 살고있는 지구를 없애려는것과 같은 대재난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 조선의 백전백승을 세계는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는 평화로운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선군조선에 승고한 경의를 드려야 할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전면적으로 펼치신 선군정치, 이는 침략의 총탁이 나라의 대문을 짓부시고 무고한 인민을 한지에 나앉게 한 다음에야 피눈물을 흘리며 손에 총을 잡았거나 그나마도 힘이 없어 무참히 당하기만 한 나라와 인민들을 잠에서 깨여나게 한 시대의 라종봉, 정치사의 대발견이였다.

력사의 그 나날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오늘도 천만의 심장을 쿵쿵 높뛰게 한다.

붉은기철학에는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천지풍과가 닥쳐와도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이 비상한 정치철학으로 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시고 민족만대 승리의 화살표를 그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직하고 강한 조직성, 규률성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튼튼한 대중적, 군사적지반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당으로 강화발전, 선군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여 수령, 당,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을 확고히 실현,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군사적담보 확고히 마련, 우리의 힘과 기술로 그 어떤 현대적무장장비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게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힘있게 추진,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백두산강국의 위용 과시,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수많이 창조된 선군문화의 본보기들…

오늘 우리 조국을 이루는 모든것, 그 어떤 원쑤나 주종세력도 감히 접어들지 못하는 절대적인 승리는 철두철미 위대한 장군님의 붉은기수호의 신념과 헌신의 위대한 산아이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에서 붉은기를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는 장군님의 유훈관철의 눈부신 기상이다.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강하게 세우고 온갖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며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고 모든것을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우리의 배짱대로 밀고나가게 하는 위대한 장군님식 붉은기수호신념이 낳은 경이적인 사변이다.

사면팔방에서 우리를 먹겠다고 피눈이 되여 날뛸 때 령도자와 인민이 사생결단으로 일어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흔적을 가서버린 경이적인 현실, 선군의 력으로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 진감시킨 희한한 현실의 체험자들인 우리 어제 절세의 애국자의 만고의 은공을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간들 잊을수 있으랴.

인민은 세세년년 휘날릴 우리의 당기를 바라보며 길이길이 아름답게 추억하리라.

우리의 당기를 제일로 사랑하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의 새시대를 장엄히 펼치시여 성스러운 기폭에 승리만을 아로새기신 위대한 혁명가, 강철의 선군령장의 불멸할 은공을.

《E. T》시절부터 조선의 혁명가들이 목숨바쳐 고수하고 휘날려온 신념의 기치, 충정의 기치,

조선혁명의 1세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또 천만리를 헤치면서 우리 세대에 넘겨준 자랑스러운 승리의 기치,

혁명선렬들이 넘겨준 우리의 당기를 끝까지 높이 휘날려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력사,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사가 이 땅우에 더 줄기차게 흐르게 하는것은 우리 세대의 량심이고 의무이다.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전진하고 승리의 탑을 쌓아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는 조선의 혁명가들은 목숨은 버려도 혁명의 붉은기, 주체의 당기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시며 붉은기수호의 궤도에서 0.001mm의 탈선도 허용치 않으시는 결출한 신념의 최강자이시다.

가장 옳은 진로를 따라 간고하면서도 긍지에 넘친 길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력사가 오늘의 우리 세대와 후세에 가르쳐주는 참으로 고귀한 진리가 있다.

침략의 무리들을 끝없는 공포에 떨게 하고 적들이 고안해낸 숱한 반공화국압살책략들을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날려보내는 우리의 붉은기,

붉은기를 지키는 길만이 우리 혁명의 위대한 지도적지침이며 승리의 원동력인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길이 빛내이는 길, 제국주의와의 대결을 종식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내부르는 해방동이를 타다남은 재처럼 날려보내고 주종세력들이 던지는 평화공세앞에서 추호도 멸력임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붉은기를 무려움의 눈길로 바라보며 리해 세계정치계의 정탐을 잊지 말자.

《김정일붉은기,

누구든지 반사회주의역풍과 제국주의자들의 궤변에 정신이 흐려질 때 사회주의의성새우에 창공높이 휘날리는 김정일붉은기를 바라보라.》

잃을것은 온갖 반동적이고 썩어빠진것이며 얻을것은 억천만번 기어이 일어나 혁명을 하게 하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치리념을 뼈에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큰걸음으로 떽하신 선군의 길, 붉은기수호의 길을 영원히 걸어야 한다.

초강경대응전략은 곧 평화이다.

이는 곧 제국주의자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의 봉쇄, 제재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강국건설에로 가는 휘황한 지름길이다.

초강경대응전략은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만 담보한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과 핵무력건설구상을 높이 받들어 주체무기, 주체탄연구개발과 생산에서 다계단으로 변을 일으키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붉은기수호신념이고 붉은 기폭에 더 큰 승리만을 아로새길 철의 의지이다.

주체적핵무력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한 대승리는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백두산대국의 제일국보이다.

우리에게는 미국본토를 비롯한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악의 소굴을 재가루로 만들어놓을수 있게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최상의 경지에서 완성한 핵공격수단이 있다.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국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과시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성공,

남조선괴뢰들과 미제의 뒤통수에 아무때나 마음먹은대로 멸적의 비수를 꽂을수 있게 하고 우리가 핵공격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섰다는것을 세계가 공인하게 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

력사의 그 나날에 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과 의지가 천만의 심장을 울린다.

핵무력강화를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굴함없이 이어나가시며 장군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한생의 념원을 죽으나사나 반드시 이룩해내고야말 신념을 더욱 굳히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심장의 맥동을 함께 하여야 한다.

우리의 최후승리는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된 온 나라의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합성의 진감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총돌진의 기상이 활화산처럼 분출하여야 한다.

천만의 철의 대오가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에 총매진하여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주는것으로 우리의 당기를 더 붉게 물들이고 자랑차게 휘날릴것이다.

이 일편단심이 위대한 장군님의 붉은기정신을 체질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붉은기수호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 천만대오의 심장의 박동이다.

령도자와 천만의 철의 대오가 일편단심으로 살며 투쟁하는 혁명은 백전백승한다. 이는 정의이다.

본사기자 량 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아부쟈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 무력총사령관

무함마두 부하리각하

나는 귀국의 독립 56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사회적안정과 단합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10월 1일 평 양

꼬나크리

기네공화국 대통령

알파 꼰데각하

나는 기네독립 58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기네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10월 2일 평 양

박 봉 주 총 리

홍남항 현지료해

【평양 10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박봉주내각총리가 홍남항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우리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총동원, 총집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홍남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북부전역에 더 많은 세멘트를 신속히 보내주기 위한 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총리는 홍남항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집배들의 출항과 세멘트상선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의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위하여 철야전투를 벌리고있는 로동계급과 함흥시 인민들을 고무하였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항만기중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철도화물수송을 따라세워 집배에 의한 북부피해복구자재수송량을 높이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한편 총리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 홍남비료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홍남전극공장을 돌아보면서 비날론생산을 정상화하고 설비보수용자재, 협동품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며 전국의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실무적대책을 세웠다.

제일가는 중대사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은 날이 갈수록 커다란 전인력을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어머니 우리 당의 한량없는 진정에 뜨거운 눈물을 머금게 하고 그 진정속에 흘러난 전설같은 인민사랑의 이야기들을 가슴뜨겁게 더듬어보게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었습니다.》

언제인가 우리 나라의 최북단에 자리잡고있는 어느 한 탄광에서 있은 일이다.

뜻밖의 사고로 하여 3명의 탄부가 심한 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처하게 되였다.

중앙의 한 일군은 해당 일군들을 찾아 치료대책을 잘 세우라고 당부하면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피로와하실것을 생각하여 사고전말에 대하여 장군님께 보고드리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일군을 부르시여 사고전말을 보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엄하게 질책하시였다.

직정을 끼쳐드릴가봐 보고드리지 못한 그 일군의 심중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타까운 어조로 탄부들의 생명이 위급한데 내가 걱정하고 안하는것이 문제로 되는가, 탄부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데 있는가고 준절히 타이르시였다.

일군은 죄책감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면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진정이 고인 뜨거운 인정에 목이 팍 메여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빨리 화상당한 탄부들을 살리기 위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탄부들을 살려내야 하며 완전히 회복시켜 대오에 세워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잘 아시는 의사들의 이름까지 한명한명 짚으시며 문제는 의료집단과 의약품들이 탄부들에게 한시바삐 가닿도록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비행기를 띄우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즉시 탄부들을 살려내기 위한 강력한 의료진이 무어지고 귀중한 의약품들이 지체없이 마련되였다.

그런데 온종일 찌푸둥해있던 하늘에서 저녁무터 바람이 불면서 억수로 비가 내려 비행기를 띄울수 없게 된것이 문제였다.

창가에 다가서시여 폭우가 쏟아지는 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군용비행기를 띄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3명의 탄부들을 위해 군용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였던것이다.

어찌 이뿐이랴. 그후에도 화상당한 탄부들의 치료정형에 대하여 여러차례나 료해하시고 그들이 무슨 꿈이 좀처럼 내리지 않아 고통을 겪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치료대책까지 하나하나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대양에도 기슭이 있고 대양의 빛도 그늘진 곳을 남긴다.

허나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빛발은 지하막장의 평범한 탄부들에게도 따스히 비쳐들어 새 생명의 활력을 부어주었으니 인민과 관련된 문제를 천만가지 일중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극진히 보살펴주신 우리 장군님은 진정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시였다.

본사기자 강 원 남

대를 이어 룡남산교단에 세워주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으로 영광스러운 김일성종합대학이 어느덧 창립 70돐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학의 창립과 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업적과 사랑의 력사가 차넘치는 대학교정에 들어서고 더없이 신성한 교단에 나설 때마다 저는 대를 이어 받아안은 믿음과 사랑을 감격속에 돌이켜보군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김일성종합대학의 첫 교단에 서게 되였습니다.

《위촉장

이름 김석형

귀하를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으로 위촉함.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 일 성》

해방전과 해방후 남조선에서 민족적차별속에 불우한 나날을 보내던 식민지인테리인 저의 아버지는 이렇게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38°선을 넘어섰으며 주체35(1946)년 김일성종합대학 개교식날에 그이를 처음 뵈옵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오늘 해방된 조선이 요구하는 민족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이 종합대학을 개교하게 되는것입니다. 국가와 인민은 이 종합대학에 큰 기대를 가지고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국가와 인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성과적으로 완수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며 또 그것을 중심으로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후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한돐기념 전람회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안내해드리게 되였습니다. 정중히 인사올리는 아버지를 알아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뜨겁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정말 수고했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전람회장을 돌아보시면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인 대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르쳐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의 아버지를 때로는 현지지도의 길에도 불러주시고 나라의 중대사를 론하는 자리에도 자주 찾아주시며 대학교육사업과 력사학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강좌장으로, 학부장으로 키워주시였습니다.

전화의 나날에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높은 뜻에 따라 《조선봉건왕조실록》을 구출하는 사업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령님께서 백송리에 찾아오시여 직접 주신 중요한 도서집필과업을 완성하여 그이께 기쁨을 드리는 최대의 영광을 지니기도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사랑과 정력적인 이끄심속에 아버지는 력사학계에 많은 공적을 세웠으며 김일성훈장수훈자, 김일성상계관인, 원사, 교수, 박사로 성장하여 조선지식인으로서의 최상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습니다.

저 역시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에 의하여 아버지의 대를 이어 룡남산교단에 서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정세가 극도로 긴장하던 시기에도 아버지의 사업과 생활을 료해하시다가 인민군대에서 복무하고있던 저를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시켜 아버지의 대를 잇게 해주시는 사랑의 조치를 취하여주시였습니다.

제가 주체82(1993)년 12월 30대의 력사학박사가 되여 위대한 장군님께 충정의 편지를 삼가 올리였을 때 그이께서는 저를 따뜻이 축복해주시였습니다.

저는 대를 이어 배려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정으로 보답하고저 김일성종합대학의 영예로운 교단에서 후대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적으나마 기여를 하게 되였으며 그 나날에 교수, 박사로, 강좌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신성한 룡남산교단을 지켜가고있는 저의 가정에 배려해주신 절세위인들의 믿음과 사랑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계속 이어지고있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여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사랑과 격려의 축복을 보내주신 우리 원수님이십니다.

진정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명문대학도 많지만 이렇듯 대를 이어 절세위인들의 믿음과 은정속에서 교육과 과학의 상상봉에 올라 신성한 교단을 지켜가는 그런 가정과 교육자, 과학자들은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고 높이 자랑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으로 높이 솟은 교단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더욱 빛나는 세상제일의 교단이라고.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박사 김 은 태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과학기술의 룡마타고 장쾌하게 울려가는 진군포성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떨치고있는 사리원대성타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지난 9월 20일 사리원대성타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크나큰 흥분과 격정에 휩싸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서 자기들이 거둔 성과가 우리 당 200일전투기후장에 뚜렷이 아로새겨져 당중앙위원회 속하문을 받아안는 영광을 지닌것이다.

크지 않은 경공업공장이 무엇으로 하여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 탄전들과 어깨나란히 만리마선구자단위대렬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게 되었는가.

년간 타올생산계획을 넉달이나 앞당겨 완수!

지난 시기같으면 상상할수 없었던 놀라운 실적은 참으로 자랑할만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타올을 몇만배 더 증산하였는가를 론하기 전에 그 놀라운 실적속에 비낀 과학의 힘에 대하여 소리높이 전하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난 7월 어느날, 수도 평양에서는 지적제품전람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전국각지의 과학연구 및 교육단위와 기관, 기업소들에서 첨단기술, 특허, 발명으로 등록된 기술들을 비롯하여 수백건의 지적제품들을 내놓아 전람회장은 많은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참관자들로 흥성이였다.

그중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과 사리원대성타올공장에서 전시한 《타올뜸류리지원설계/뜸류리지원제작체계》도 있었다. 나라의 방직공업발전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귀중한 과학기술성과인것으로 하여 방직공업부문 일군들과 현관단위 기술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모았다.

타올문양의 전송속도며 기계적성능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공장지배인은 말끝마다 입버릇처럼 말하였다.

《우리 공장에 한번 와보십시오. 첨단수준에 올라선 타올생산공정이 현실에서 얼마나 큰 은을 내고있는가를 눈으로 보게 될것입니다. 생산속도는 물론이고 새 제품개발속도도 지난 시기와 대비도 할수 없이 비상히 높아졌습니다.》

정말 그랬다. 직기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완성되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지 한해 남짓한 기간에만도 공장에서는 벌써 수십종에 달하는 새 타올제품을 개발하였다. 타올문양을 한번 바꾸자면 너무도 많은 품이 들어 한번 무늬를 새긴 채눈종이가 오랜 기간 직기에 걸려있었던 공장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먹은대로 무늬를 바꿀수 있게 되어 올해에만도 수십종이나 되는 새 제품을 개발하여 수요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고 주문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전진인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과정에 창조된 혁신적성과도 대단한것이였다. 직기마다 설치되어있는 조종반으로 기대공들이 문양조직 등을 손쉽게 할수 있어 이전에는 신입기대공이 기능을 련마하려면 6개월은 잘 걸려야 하던것을 지금은 갓 입직한 직포공도 두달안으로 어엿한 기능공이 되어 복잡한 타올직기를 척척 다룰수 있게 되였다.

방직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첨단을 개척한 긍지로 가슴이 부풀어오를 때마다 녀성지배인의 마음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리고 또 달리였다.

(타올생산을 전문으로 하여 인민생활에도 이바지하고 세계시장도 독점하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공장은 세계와의 경쟁을 벌릴수 있는 주로에 들어섰습니다.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사리원대성타올공장의 생산은 마음놓으십시오. 기어이 세계패권을 쟁취할것입니다.)

지배인 장명실동무는 그 시각 위대한 수령님들과 이렇게 마음속대화를 나누고있었다. 그러는 그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운명의 명줄처럼 간직하고 투쟁해온 공장종업원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오래동안 멎어섰던 직기를 살려보기 위해 강심을 먹고 나선 녀성지배인의 발길은 그 어디에나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공장종업원들이 달라붙어 여러 직기부분품들을 개조하여 맞추어보기도 하였으나 실패만 뒤따랐다.

(이대로 다음대에 공장을 물려줘야 한단 말인가.)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지배인의 마음은 조바심으로 타드는것만 같았고 안타까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끝내 지도국에 제기하여 직기를 수입하자는데로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였다.

그러나 온 나라 도처에서 타번지는 국산화열풍은 녀성지배인으로 하여금 생각을 깊이하게 하였다. 수입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 설비국산화비중을 높인 단위들이 앞을 다투어 연해연방 신문과 텔레비죤을 통해 소개되고있었다.

현대화에서 중핵은 국산화라고 절절히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는가를 공장일군들은 뼈속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아무리 복잡한 타올직기라고 해도 우리 과학자들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대담하게 현대화를 밀고나갑시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고충을 헤아린 지도국일군들이 발벗고 도와나섰다.

이렇게 되여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기계공학, 열공학, 자동화공학부문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강력한 연구집단이 공장에 내려와 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직기현대화를 본격적으로 밀고나가게 되였다.

공장종업원들의 방조속에 직기의 기계적성질을 파악한 과학자들은 직기들의 개별조종뿐아니라 타올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확립까지도 실현할 목표를 제기하였다.

공장종업원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개별적인 직기들의 자동화를 실현하는것만으로도 큰 성과로 여겼던 이들이였다. 기술적제원이 복잡한 타올직기들을 종합조종하는 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는 방직공업부문에서의 첨단을 의미했다. 방직공업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타올직기들에 대한 개별조종으로 만족하고있던 때에 단번에 통합생산체계확립에로 도약한다는것이 이들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였던것이다.

그러나 그 꿈은 끝내 현실로 펼쳐지고야말았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기술적제원이 복잡한 타올직기들의 개별조종반도 자체로 제작하여 직기마다에 설치하였으며 CAD/CAM체계를 도입한 높은 수준의 타올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를 완성하는 눈부신 성과를 안아왔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렇게 과학의 힘으로 방직공업부문의 첨단을 개척하였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직선주로에 확고히 들어섰다.

공장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제힘을 믿고 주체과학기술에 의거하면 첨단의 요새정령도 문제없다는 배심이 자리잡게 되였고 세계와의 제품경쟁을 탁차게 벌려나가려는 포부가 비상히 커졌다.

과학기술을 틀어쥔 자력자강의 창조력, 이것이 바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방식으로 되였다.

20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최신과학기술을 습득하려는 종업원들의 열의는 얼마나 비상히 앙양되였던가.

지난 8월초 어느날이였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는데 공장의 과학기술보급실의 불빛은 꺼질줄 몰랐다.

수리공 리주성동무가 같은 작업반동무와 함께 콤퓨터에 마주앉아 시간가는줄 모르고있었다. 이날 한 직기가 직물구조가 변경되면서 전자장치와 기계장치와의 호환이 잘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던것이다.

그날 리주성동무는 마지막까지 노력하여 전자장치의 회로도에서 원인을 찾아내고 개별조종반을 제손으로 수리하고야말았다. 리주성동무의 탐구심은 참으로 놀랍만 하다고 후날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은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자기들의 힘으로 첨단설비를 척척 다루어 직기들마다에서 만가동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게 되자 직포작업반 생산자들속에서는 너도나도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열의가 비상히 높아졌다.

아직은 년한이 어린 직포공 김향미, 진성희동무들까지 전자장치의 구조적특성을 꿰뚫고 개별조종반을 능숙하게 다루게 되였던것이다.

최신과학기술을 배우려는 생산자들의 열의가 높아갈수록 지배인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생산자들을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함흥수정양경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 입학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고 기술부원 안영진동무를 축으로 하여 새 제품개발력량을 보강하였다.

공장의 새 제품개발력은 날로 높아갔다.

200일전투기간에만도 안영진동무는 수요자들의 심리와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용도에 따르는 도안을 10여건이나 착상하였다. 새로운 무늬가 창안될 때마다 기술공정원 봉정춘동무는 자기가 직접 기대를 다루며 치수와 짜임새를 확정하고 표준조작방법을 완성했다.

가정부인의 몸이지만 직기에도 정통하고 천의 모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뙤근도 미루어가며 현장을 떠날줄 모르는 그의 노력에 감동된 직포공들이 새 무늬의 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그 짜임새를 열심히 배워나갔다.

새 제품개발속도가 높아지고 일인당 생산성은 날로 늘어나 공장은 200일전투가 시작되여 90여일만에 년간계획을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과학기술의 룡마를 탄 공장종업원들이 솟린 장쾌한 승전포성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를 어떻게 빛내여야 하는가를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바로 현대화된 일터에서 높이 울리는 증산의 동음으로 힘있게 대답하였다.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이면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하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당의 사상을 실천으로 증명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오늘도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며 전진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철옥
사진 본사기자 리동규

전시식량을 보장하던 그때처럼

수매량정성 일군들과 종업원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뜨거운 호소를 받들고 수매량정성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비상한 정신력과 애국적열의를 총폭발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지난 9월 12일 수매량정성 일군들과 종업원들앞에는 몇시간내에 많은 량의 식량을 북부피해지역으로 떠나보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제기되였다.

이런걸으면 며칠은 실히 걸려야 할 아름찬 과제였다. 그러나 세상에 없는 피해복구전쟁이 선포되고 온 나라에 기적창조의 거세찬 열풍이 휘몰아치는 현실은 이들에게 비상한 목표와 각오를 안고 배가의 속도로 질주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성책임일군들로부터 나어린 처녀종업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전화의 나날 불비속을 헤치며 싸우는 고지에 식량을 나르던 전세대들처럼 식량운반전투를 벌리였다. 하여 성자체의 힘으로 단 몇시간동안에 계획된 량의 식량을 전부 렬차에 싣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떠나는 식량수송렬차를 뜨거운 마음으로 바래우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성책임일군이 말했다.

《동무들! 전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전선행렬차를 타고 북부전선으로 달려갑시다.》

그의 호소는 성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혁명적열의와 헌신적복무정신을 총폭발시키는 기폭제로 되였다. 그들모두는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깊이 자각하였다.

어서 가자, 우리 부모형제들이 있는 피해복구전선에로!

이렇게 순간순간 마음속으로 웨치며 현지에 다달은 성일군들은 순간도 지체없이 전투에 진입하였다. 이들은 현지에서 직접 식량공급사업을 장악지휘하는 한편 피해지역을 비롯한 두만강연안의 20여개 농장들에 직접 내려가 농작물피해정형을 료해하였으며 상하지 않은 농작물들을 최대한 수확하여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화선식으로 조직진개하였다.

도로가 파괴되고 다리들이 끊어져 현지료해사업과 식량공급사업은 걸음걸음 난관에 부딪쳤다. 하지만 이들은 겁쌍이는 애로와 난관앞에서 결코 주춤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오직 하나 어머니 우리 당의 걱정과 아픔을 천만분의 일이라도 덜어드리려는 충정의 일념이 모두의 가슴속에 차고넘쳤다.

수매량정성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투쟁으로 하여 지금 온 나라 인민의 비상한 애국적열의와 따뜻한 정, 헌신적투쟁속에 마련된 귀중한 식량이 한톨의 허실도 없이 제때에 피해지역들에 가닿고있으며 복구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과 돌격대원들을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창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이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많은 량의 지원물자들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고있다.

수매량정성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오늘도 전화의 나날 불비속을 헤치며 싸우는 고지에 식량과 탄약을 보장하던 1950년대 후방인민들처럼 더 많은 식량을 북부전선에 보내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김국철

단층살림집골조공사 90%계선 돌파

무산군 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려명거리건설돌격대 룡산건설사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붙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무산군의 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려명거리건설돌격대 룡산건설사단의 전투원들이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수놓아가고있다.

주초로통자구에 일떠서는 수십세대의 단층살림집건설을 맡은 사단에서는 10월 2일현재 골조공사의 90%계선을 돌파하고 전진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사단정치부에서는 전투적이며 호소성이 강한 직관선전물과 격동적인 표어들, 힘있는 정치사업을 통한 사상전의 도수를 높여 대원들모두가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기적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고있다.

사단지휘부일군들이 필요한 건설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투조직을 빈틈없이 진행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공정별, 날자별로 전투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수시로 현장을 밟으며 시공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속히 풀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북변땅에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보금자리를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사단의 돌격대원들이 공사의 선행공정인 휘틀제작과 블로크찍기에서부터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전체 돌격대원들은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예비를 탐구동원하여 3일동안에 500여㎥의 휘틀을 제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기세로 사회주의경쟁의 불바람속에 블로크찍기에 진입하였다.

북방의 기후조건과 시공특성상 기계설비를 리용할수 없는 조건에서도 이들은 1800여㎥의 토량을 처리하면서 20시간만에 살림집기초굴착작업을 끝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지상공사에서 일체식과 블로크속조를 배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단은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놓았다.

4대대, 16대대를 비롯한 전체 사단의 전투원들은 하루평균 200%의 실적을 기록하며 공사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고있다.

철근가공을 맡은 11대대, 14대대의 전투원들은 전력공급이 중단된 속에서도 해불로 현장을 밝혀가며 맡은 전투임무수행에서 헌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목재생산을 담당한 15대대의 돌격대원들은 80여리나 떨어진 림지로 한달음에 달려가 결사의 투쟁을 벌려 불과 며칠사이에 살림집골조공사에 필요한 목재의 절반이상을 보장하였다.

사단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골조공사실적은 일정계획보다 2일간이나 앞서나가고있다.

룡산건설사단의 전체 돌격대원들은 준엄한 전화의 나날 맨손으로 피대를 돌려가며 전시생산을 보장하던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으로 맡은 살림집건설전투장에서 련속공격,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현지보도반

정신력발동에서 틀어쥔 문제

평양체육단 초급당위원회에서

대중의 정신력이 어떻게 분출되는가에 따라 해당 단위의 사업성과가 좌우된다.

평양체육단 초급당위원회가 이룩한 성과를 통해서도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사업을 잘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부문 당조직들은 체육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평양, 그 이름앞에 떳떳하게

몇해전 체육단 초급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여온 리근철동무는 자기가 해야 할 사업을 놓고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무엇부터 어떻게 할것인가. 물론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호소나 하고 회의나 소집한다고 풀리는것이 아니지 않는가.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초급당일군은 사업의 첫 공정으로 먼저 체육단의 연혁부터 연구하였다.

체육단에는 나라의 체육기술발전과 체육인들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체육단을 찾아주시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평양체육단이 체육활동의 모든 면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믿음과 기대가 가슴을 울리였다.

그 믿음, 그 사랑을 안고 얼마나 많은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 체육단의 명예를 떨쳐왔던가. 김철환, 김영식, 리명훈, 김광숙, 홍은정…

연혁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초급당일군은 하나의 문제점을 찾아쥐게 되였다.

우리에게는 남다른 긍지와 영예가 있다. 그것은 선수들의 앞가슴에 새겨진 《평양》, 바로 이것이다.

초급당일군은 체육단의 모든 일군들과 체육인들이 평양을 빛내이는 체육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으로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것을 사상교양사업의 기본목표로 정하였다.

새로운 목표에 맞게 그에 따르는 방법론을 심화시켜나갔다.

초급당위원회는 온 체육단을 정신력발동의 교양장소로, 모든 체육인들의 가슴속에 자기 단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교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이 훌륭히 꾸려지고 헌지지도 표식비가 새롭게 건립되였다. 훈련장과 선수합숙 등 체육단의 이르는 곳곳에 조국의 존엄과 체육단의 명예를 지켜 우승의 금메달을 쟁취한 체육인들의 투쟁성과들을 보여주는 직관물들이 게시되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다.

그 과정은 모든 체육인들과 감독들의 가슴마다에 체육단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더욱 깊이 새겨주는 계기로 되였으며 남다른 긍지와 영예를 간직하고 높은 체육성과로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비상한 의지를 백배해준 과정으로 되였다.

훈련전에 진행하는 10분간의 교양사업에도, 훈련의 쉴참에 진행하는 정치사업의 하나하나의 자료에도 체육인들의 가슴속에 자기 단위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애써온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진정이 력력히 깃들어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지난 기간 높은 체육성과로 당과 수령을 받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금메달을 쟁취한 로세대체육인들과의 상봉모임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하였다.

경기마다에서 언제나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그리며 주체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고 조국의 영예, 체육단의 명예를 높이 떨친 그들의 감동깊은 이야기는 새 세대 체육인들의 심장을 뛰게 하였다.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중심고리를 옳게 틀어쥔 사상사업의 실효는 컸다. 날이 갈수록 대중의 기세는 용솟음쳤고 그것은 그대로 높은 체육성과들로 이어졌다. 련이어 안아올린 우승컵과 금메달들…

그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힌 평양, 그것은 곧 조국이였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사랑과 헌신으로 떠올린 우승의 금메달

대중의 정신력이 만능의 보검이라면 대중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그 정신력을 분출시키는 자양분이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체육단의 모든 일군들과 감독들이 훈련실적을 보기 전에 체육인들의 얼굴빛을 먼저 보며 떨사복무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곳 초급당일군의 굳어진 아침 첫 일과가 인상깊다.

그는 아침일찍 출근하면 사무실이 아니라 선수들의 합숙부터 찾는다. 그리고 밥새 앓는 사람은 없었는가를 묵묵 묻군 한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가 있으면 즉시 대책을 세워나간다. 변함이 없이 이어지는 그의 이런 발걸음에서 체육인들은 친어머니의 따뜻하고 다심한 사랑과 정을 느낀다.

지난해 어느날 아침이였다.

녀자축구선수들의 아침훈련모습을 바라보던 초급당일군의 얼굴색은 밝지 못했다.

림의 주장이며 기둥선수인 최은주동무의 운동상태가 눈에 걸렸던것이다.

감독들을 만나 이야기해보았다. 아니나다를가 그가 몸시 앓고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진행한다는것이였다.

당장 경기가 박두하였기때문에 감독들도 안타까와하는것이 알렸다.

물론 우리에겐 금메달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귀중한것이 바로 그들의 건강이 아닌가.

초급당일군은 즉시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오전에 예견했던 중요한 사업도 뒤로 미루었다.

체육단의 책임일군들이 직접 나서서 효과가 있다는 약재들을 찾아 사방 뛰여다녔다. 건강회복에 좋은 여러가지 보약들과 식료품들을 들고 훈련장과 합숙을 찾고찾았다. 나어린 한 녀녀선수의 건강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는 책임일군들의 진정어린 모습에서 녀자축구선수들은 불른 감독들과 체육단의 모든 체육인들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기계제조감독 김춘필동무의 가슴속에도 초급당일군을 비롯한 체육단책임일군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이 간직되여있다.

자기가 맡은 체육선수들을 무시할수 없는 세계페권자로 키우기 위해 가정부인의 몸으로 헌신의 땀방울을 흘려가는 그의 생활에서는 걸리는것이 많았다. 그렇지만 언제 한번 내색하지 않았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그가 훈련지도에 전심하도록 생활을 각방으로 도와나섰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과 몸보신에 좋은 귀한 약재들까지 성의껏 마련하여주면서 그를 고무해주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체육선수들의 후방공급사업과 생활조건보장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

언제인가 체육단일군들의 모임에서 하였다는 초급당일군의 말이 있다.

《체육선수들을 위해 우리 일군들이 있고 당조직이 있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합시다.》

집을 떠나 합숙생활을 하는 체육선수들의 심리와 체질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된 식사차림표들과 훌륭하게 꾸려진 숙소와 침실들, 훈련장들마다에는 일군들의 이런 뜨거운 진정이 슴배여있다.

진정을 바치는것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업은 없다. 집단안에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들이 나날이 늘어났으며 대오의 사상의지적단합이 더한층 강화되게 되였다.

정신력이 최대로 앙양된 선수들은 제45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 50개를 포함한 123개의 메달을 쟁취하고 올림픽 및 세계페권자, 아시아페권자, 공훈체육인들로 자라나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게 되였다.

공화국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내경기들에서 축구와 체조, 레스링, 마라톤 등 종목별로 어려차례에 걸쳐 금메달을 쟁취하여 평양체육단의 영예를 빛내였다.

사랑과 헌신으로 떠올린 우승의 금메달들이였다.

이런 성과속에 체육단은 얼마전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게 되였다.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사업을 중시하고 방법론있게 전개하는 과정에 이곳 초급당위원회가 안아온 귀중한 열매였다.

본사기자 윤명철

신천군 사창협동농장 청년작업반 청년들

위훈은 청춘들의 길동무

청춘, 그 이름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신천군 사창협동농장 청년작업반원들의 투쟁기풍에서 찾아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시대 영웅청년의 값높은 영예를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얼마전 농장에서 태양열온실보수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그때 이곳 청년들은 보수가 아니라 그 자리에 청춘들의 위훈으로 빛나는 태양열온실을 보란듯이 륭륭하게 새로 건설하자는 대담하고 통이 큰 안을 내놓아 사람들을 놀래웠다.

강냉이가을전으로 이것을 해낸다는것은 아름찬 과제가 아닐수 없었지만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을 남먼저 맡아나서군 하는 청년들의 마음은 하나와 같았다.

당조직에서는 불같은 청춘들의 제의를 적극 지지해주었다. 다음날부터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청년들은 1000여㎡의 토량을 단숨에 처리하고 태양열온실축조공사에 달라붙었다.

바로 이러한 때 집짐승우리를 건설하여야 할 과제가 나섰다.

온실건설도 힘에 부쳤지만 청년작업반원들은 이 과제도 스스로 맡아안았다. 림체전이 벌어졌다.

부족되는것이 많았다. 작업반장 권정실동무를 비롯한 초급일군들은 부족되는 자재를 해결하면서 건설속도를 중단없이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애로와 난관이 앞길을 막아나설 때마다 김성국동무를 비롯한 초급청년동맹일군들은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끼면서 전투장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한껏 나래치게 하였다.

청년들은 그야말로 결사전을 벌리였다. 그 과정에 건설물들은 하나하나 완공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곧 강냉이가을이 시작되였다. 청년들은 낮에는 강냉이가을을, 밤에는 미진한 태양열온실건설과 집짐승우리건설을 진행하였다. 며칠밤을 꼬박 새우면서 힘겨운 전투를 벌렸지만 값높은 위훈으로 청춘을 빛내이려는 청년작업반원들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억세여졌다.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그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아름찬 전투목표들을 어김없이 실현해나갔다.

이렇듯 청년작업반 청년들은 하루를 열흘, 백날맞잠이로 전투를 벌리면서 위훈창조로 충정의 200일전투의 날과 날을 보내고있다.

청춘은 곧 위훈이라는것을 청년작업반의 청년들은 전투장마다에서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는 농업전선의 미더운 청년들 아니 이 나라의 수백만 청춘들의 열정의 모습을 본다.

본사기자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하자!

누구나 대중체육활동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영광전주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영광전주공장은 콩크리트전주생산을 맡아하고있는 우리 나라 굴지의 전주생산기지이다.

공장은 지난 10여년동안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수행하는 궁지와 함께 대중체육사업에서 앞장서나가는 자랑도 가지고있다. 군적으로 진행하는 여러 체육경기들에서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뿐아니라 인민체력검정사업에서도 모범이라는 사실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체력검정은 체육을 대중화하고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며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킬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인 판정검열사업입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공장에 꾸려진 사무청사, 과학기술보급실, 남새온실 등을 보면서 놀라움에 휩싸여있던 우리는 지배인 리주진동무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우리가 생산을 정상화하게 된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체육사업에 대한 종업원들의 관심과 열의를 높이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면서 신심을 북돋아준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체육에 대한 공장종업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매우 높다는데 대하여 알게 되였다. 산뜻하게 꾸려놓은 배구장과 특색있게 제작한 이동식롱구대, 잔디밭에 펼쳐진 체육장, 종업원들모두가 떨쳐입고 나서군 하는 운동복, 수십벌의 각종 경기복들, 수많은 축구, 롱구, 배구공들이 그것을 증명해주는듯 하였다.

하다면 크지 않은 공장에서 어떻게 체육시설들과 기재들을 잘 갖추어놓고 체육에 대한 종업원들의 관심과 열의를 높이면서 인민체력검정사업에서 앞장설수 있었는가.

몇해전까지만 해도 공장일군들속에서는 인민체력검정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지 못했다. 그러다나니 배구나 롱구경기는 여러 계기에 자주 벌어져도 높이뛰기, 너비뛰기 등은 인민체력검정철간에만 진행되였다. 결과 판정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없었고 부족점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이 깜빠니야적으로 진행되는데 그치였다.

인민체력검정사업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종업원들모두의 체력을 증진시키며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것을 자각한 일군들은 종업원들이 심생활을 통하여 인민체력검정사업에 대한 열의를 높이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을 결심을 세웠다.

공장일군들은 인민체력검정에서 취급하는 종목을 공장에서 해마다 여러차례 진행하는 체육경기에 포함시키는 한편 체육의 날에도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내밀기로 하였다.

그러되 인민체력검정에서 취급하는 종목경기들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도록 하였다. 결국 종업원들이 평시에 인민체력검정을 위한 훈련도 꾸준히 진행할수 있게 하자는것이였다.

처음 이러한 체육경기가 진행될 때까지만 하여도 일부 종업원들은 축구를 비롯한 구기종목경기에서만 이기면 얼마든지 종합점수가 높을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인민체력검정과 관련한 종목경기의 성적에 따라 종합점수평가에서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때로부터 인민체력검정에서 합격되기 위한것은 물론이고 체육경기에서도 기어이 첫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종업원들 누구나 이 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훈련에 정열적으로 참가하게 되였다.

하지만 관심이나 열의가 높아졌다고 하여 인민체력검정사업에서 모두가 합격될수 있는것은 아니다.

공장일군들은 종업원들의 관심이 높아진 조건에서 인민체력검정사업이 실지 대중의 인민체력검정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단위들가운데는 사리원수지마대공장도 있다.

모습에서 진정을 읽을줄 알고 그들의 속마음까지 헤아릴 때 이렇게 좋은 방도도 생기는 법이다.

하나의 기준

올해의 첫 인민체력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대상들은 대체로 나이가 많거나 육체적준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였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것을 일군들은 생산총화를 통하여 절감하게 되였다. 바로 일생산계획수행에서 뒤자리를 차지하는 종업원들의 대부분이 인민체력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하였던것이다.

공장에서는 일군들과 이미 검정에서 합격된 종업원들을 말동하여 불합격된 성원들을 맡아 도와주게 하였다. 결국 온 공장이 달라붙었다.

집단의 힘은 대단하였으며 효과는 뚜렷하였다. 온 집단이 달라붙으니 때를 놓고 주저앉아있던 종업원들이 신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휴식일은 물론 작업의 협찬에도 자체로 이악하게 훈련하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이렇듯 집단의 무궁무진한 힘으로 발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가 인민체력검정사업에서 뒤떨어졌던 종업원들이 체육에 대한 애착, 공장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 중요한 밑뿌리로 되였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인민체력검정기준은 다르다.

하지만 월간사업에 떨쳐나선 이 공장 로동계급의 심장속에는 오직 하나의 기준만이 백박혔다.

그것은 다름아닌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집단주의이다.

그 위력한 투쟁기풍으로 누구나가 인민체력검정월간사업에서 성과를 올리며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열정에 넘쳐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해가는것이 바로 이 공장 로동계급의 자랑찬 모습이다.

강 효 심

집단주의와 체육사업성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범체육군, 모범체육단 위칭호쟁취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체육월간사업을 잘 조직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는 속에 올해 조건보장사업에 품을 넣어 지난 8월 어느날 구내길에 나섰던 지배인 조금란동무는 뜻밖에도 몇몇 처녀종업원들이 자기 일터주변에 자체로 금을 그어놓고 너비뛰기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였다.

그는 이것을 스쳐지나지 않았다. 인민체력검정월간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은 많이 했지만 종업원들에게 훈련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못한 자책감이 컸다.

첫 검정을 놓고보아도 철봉현수, 높이뛰기를 비롯하여 체육기재를 리용해야 하는 종목들에 대한 판정에서 불합격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여 일군들은 해당한 훈련기재들을 더 마련하였고 높이뛰기에서 불합격된 녀성종업원들을 위해 자체로 마음껏 훈련할수 있는 조건도 보장해주었으며 너비뛰기를 할수 있는 장소도 여러곳에 꾸려놓았다.

이렇게 되니 종업원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훈련을 하게 되였고 결국은 짧은 기간에 합격되게 되였다.

일군들이 언제나 대중의 모습에서 진정을 읽을줄 알고 그들의 속마음까지 헤아릴 때 이렇게 좋은 방도도 생기는 법이다.

강원도정보통신국에서

녀자배구선수의 기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체력검정사업은 대중자신의 사업입니다.》

강원도정보통신국의 녀자배구팀은 도에서 진행하는 경기에서 우승의 자리를 도맡아놓고 차지하여 명성이 자자한 팀이다.

그러한 녀자배구팀선수들속에는 경기에서 이긴것보다 더 큰 자랑을 안고있는 가정부인인 김현희동무가 있다. 그 자랑으로 말한다면 최근년간 인민체력검정에서 합격되군 하는것이다.

그는 지난 시기 여러 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단위의 명예를 떨치는데 앞장선것으로 하여 집단의 사랑을 받고있었다.

그러했던 김현희동무가 체육사업에 대한 자기의 관점과 태도를 돌이켜본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몇해전 인민체력검정에서 그는 응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인민체력검정을 소홀히 대한 자책감이 컸다.

한편 이 문제를 두고 일군들속에서도 론의가 많았다.

배구, 롱구를 잘한다고 하여 결코 체육사업에서 앞장선 종업원으로 될수 없다. 모두가 튼튼한 체력을 소유하고 로동과 국방에 이바지할수 있게 준비시키자면 인민체력검정사업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합격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심화시킨 일군들은 그 해결을 위한 조직사업을 현실성있게 짜고들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김현희동무는 물론 종업원들 누구나가 대중체육사업의 목적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였다.

새로운 결심을 품은 김현희동무는 인민체력검정에 합격되기 위한 훈련을 직심스레 진행하였다. 마침내 인민체력검정에서 합격되였을 때의 기쁨이란 정기에서 이겼을 때에 비할바없이 컸다.

이 과정에 더욱 튼튼해진 몸으로 맡은 일에서 혁신을 일으켰다는 김현희동무였다.

이렇듯 어느 단위에서나 광범한 대중이 인민체력검정사업을 자신을 위한 사업,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인공으로서의 자질을 튼튼히 갖추어나가는 중요한 애국사업으로 여기고 적극 떨쳐나설 때 우리 당의 대중체육방침의 생활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교육조건과 환경을 잘 꾸려놓고

‖ 강동군 효덕고급중학교 일군들과 교직원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부문에서는 혁명의 요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중등일반교육을 비롯한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9월초 강동군 효덕고급중학교에서는 군안의 책임일군들과 교육단위 일군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일군들은 맑은 물이 감돌아흐르는 푸른 산기슭에 번듯하게 들어앉은 3층교사며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맑고 환한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활동연구실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 연혁소개실은 물론 다기능화된 교실들과 실험실들이 정말 훌륭하다. 야외학습터, 학구장, 교육설비들과 교구비품들도 나무랄데 없다.

일군들모두의 반영은 하나같았다.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몰라보게 변모된데는 교장 윤영옥동무와 교직원들의 남모르는 노력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된다는 소식에 접한 날이였다.

윤영옥동무는 격동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 그것은 나라의 교육발전에서 하나의 사변이였다.

(당에서는 나라의 중등일반교육수준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린것을 바라고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 학교는…)

낡고 오래된 교사를 바라볼수록 모자라는 교실과 실험실을 두고 자책되는바가 컸다.

윤영옥동무는 교원들의 자질을 더욱 높이는것과 함께 교육조건과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리라 결심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학교에서는 다기능화된 교실들을 꾸리는 사업을 계속 내밀면서 교육설비와 교구비품들도 더 잘 갖출 롱이 큰 목표를 내세웠다. 우선 2층으로 된 교사를 한층 더 올려 부족되는 교실과 실험실문제부터 풀기로 하였다.

그때부터 교장은 매일 낮에는 학교일을 하고 밤이면 오래전에 자기 학교를 건설한 시공자들을 찾아 많은 길을 걸었다. 한주일후 시공자들을 찾아낸 그는 지금 있는 건물우에 한개 층을 더 올려도 일없다는 담보를 받아쥐였다.

증축공사를 위한 선행작업이 진행되였다. 강남철, 림성철, 김성철동무를 비롯한 교직원들은 수백 t에 달하는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였다. 그리고 세멘트를 끌어들여 3만 5천여장에 달하는 블로크를 찍었다. 동시에 강재를 구입하여 건늠보며 다공판들을 만들어나갔다. 그다음 본격적인 증축공사에 달라붙었다. 교육강령집행에 지장없게 낮에는 맡은 일을 하고 밤이면 모두가 증축공사에 떨쳐나섰다.

하지만 대부분이 녀성들인 교직원들의 힘으로, 그것도 겨울철기간에 공사를 진행하자니 헐치 않았다. 그럴수록 김영선, 리춘화, 리은희, 리명순, 최영심동무를 비롯한 교직원들은 이악하게 벽체축조며 층막공사를 내밀었다.

날이 추워지면서 공사조건은 더욱 불리해졌다. 그러한 때 전쟁로병인 교장의 어머니가 제손으로 기른 살찐 돼지며 지원품자들을 가지고 공사장에 찾아왔다. 어머니의 소행이 윤영옥동무를 기쁘게 해주었고 교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김은희, 박영순, 최혜심동무를 비롯한 교직원들은 물을 끓여 혼합물을 이기고 층막우에 벼겨며 나때, 비닐박막을 덮어가며 일손을 더욱 다그쳤다.

공사가 진척될수록 융영옥동무는 부족되는 건설자재며 좋은 실험기구, 교구비품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 바삐 뛰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군당책임일군들이 세멘트를 화물자동차에 가득 싣고 증축공사장을 찾아왔다. 그리고는 요구되는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며 교직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후원단체들에서 이들을 도와나섰다. 김기철, 함동철, 리철환동무를 비롯한 여러 후원단체의 일군들은 학교일이자 자기 자식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고 하면서 이들을 진심으로 도와나섰다.

애써 노력한 보람이 있어 1년도 못되는 기간에 교실들이 늘어나고 학교의 면모는 완전히 일신되였다.

번듯하게 달라진 새 교사를 보며 학생들은 물론 학부형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그럴수록 교장은 교원들의 자질향상에 힘을 넣으면서 다기능화된 교실들과 실험실들이 교육실천에서 온을 내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학교를 돌아본 일군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은 그날 저녁 윤영옥동무는 교직원들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우리 당의 뜻을 받들어 모든 학생들을 최우등생으로, 고상한 도덕품성과 건장한 체력을 지닌 앞날의 미래은 역군들로 키웁시다.》

그 말에 교직원들모두가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들을 다지였다.

본사기자 박 상 훈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도록 청년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통나무생산에서 최고실적 기록

화평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흥돋적전을 벌려 지난 9월 상순현재 관리국적으로 계획먼저 년간 마감나르기계획을 끝내는 자랑찬 력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의 일군들은 마감나르기조직과 지휘를 제기있게 해나갔다. 일군들은 년간 마감나르기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내기 위한 방도를 운재차들의 실동률을 높이는데서 찾고 륜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작전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공무운수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여러대의 운재차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살려내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열흘동안에 수백리구간에 있는 7개의 다리를 개건보수하고 수km에 달하는 운재길의 폭을 넓혔으며 백수십㎥의 옹벽공사를 진행하여 운재길의 안전성, 견고성을 보장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역과 사업소, 작업소들사이의 도로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운재차들의 무사고운행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사업소에서는 산지나무터들의 통나무수량과 지리적조건에 맞게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배차조직을 짜고들면서 마감나르기실적을 높이였다. 김철수, 박성국, 김만수동무를 비롯한 공무운수직장의 운전사들은 수백리길을 달리면서 맡겨진 통나무수송과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사업소적으로 하루 최고 150여㎥의 통나무를 철도역으로 실어내는 혁신이 일어났다.

생필직장의 로동자들은 복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줄 출입문, 창문, 미닫이 등 건구들을 시급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대흥, 남소작업소들에서 며칠사이에 근 100㎥의 통나무를 생산보장하였으며 생필직장의 로동자들은 이에 맞게 전구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 도착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인 최수봉 공동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단이 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역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충정의 200일전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

각 시, 군당위원회 로병, 공로자강연강사들

충정의 20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각 시, 군당위원회 로병, 공로자강연강사들이 들끓는 전투장들마다에서 맹활약을 하고있다. 그들은 인생의 로년기에도 참된 삶을 계속 빛내일수 있도록 당초급선전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신임에 보답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대중을 만리마속도창조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강연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가 울리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면 그것은 당에 큰 힘으로 됩니다.》

각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로병, 공로자강연선전대를 조직하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충정의 200일전투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강연선전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전투장들마다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게 하고있다.

집중강연선전대활동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은 해주시당위원회 공로자강연선전대는 지난 6월 령도업적단위인 장방협동농장을 비롯한 7개 협동농장들에 나가 시와 노래를 배합한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시가 도전으로 제일먼저 모내기를 끝내는데 이바지하였다. 이 경험을 살려 지난 7월과 8월에도 협동농장들에 나가 강연선전을 공세적으로 벌려 7월말까지 논밭김매기를 일정대로 끝내고 8월말까지 풀베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도록 하였다.

엄주군당위원회 공로자강연선전대는 군안의 20여개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면서 당의 의도대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킬데 대한 내용의 강연자료를 가지고 매일 수차에 걸쳐 강연선전을 벌려 군적으로 8 000여정보의 논에 우렁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시축산기계공장과 엄주고려약포장에 나가 강연선전을 드세게 들이대여 200일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해산시당위원회 공로자강연선전대는 해산뜨락또르부속품공장 생산현장과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시안의 주요전투장들에 나가 연 3만 7 000여명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선전활동을 벌려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였다.

형제산구역당위원회 공로자강연선전대는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 신미리애국렬사릉보수공사장을 비롯한 전투현장들에 나가 180여차에 걸쳐 연 2만 9 560여명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집중강연선전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충정의 200일전투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연탄군당위원회 로병, 공로자강연선전대, 청단군당위원회 공로자강연선전대도 200일전투의 격전장들에서 대중을 새로운 만리마속도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승리자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진군길에 나서 《선군태양 김정일장군》을 비롯한 도서들에서 발취한 위대성자료와 상식자료 300여건을 카드화하고 노래악보집도 만들어 강연선전활동에 리용하고있다. 사리원시당위원회 공로자강연강사 박봉호동무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자료와 각종 상식자료, 생동한 현실자료들을 결부하여 강연선전을 실감있게 진행함으로써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박식한 강연강사로 불리우고있다.

무산군당위원회 공로자강연강사 김정룡동무는 모내기철에 두만협동농장에 나가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속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강연선전을 진행하고 자체로 준비한 5종에 80여점의 소농기구들을 넘겨주었다. 홍남구역당위원회 공로자강연강사 한대적동무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행도업적단위인 홍남구두공장과 홍남일용품공장을 비롯한 20여개의 단위에 나가 위대성자료를 결부한 강연선전을 진행하여 매월 구두생산계획과 빨래비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도 천리마구역당위원회 로병강연강사 최효신, 순천시당위원회 로병강연강사 한진택, 세포군당위원회 공로자강연강사 양옥희, 선봉지구당위원회 공로자강연강사 박청구, 단천시당위원회 공로자강연강사 김중철, 온성군당위원회 공로자강연강사 리성춘동무를 비롯한 많은 로병, 공로자강연강사들이 힘있는 강연선전으로 대중을 200일전투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로병, 공로자강연강사들의 열의가 높아가는데 맞게 각 시,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수시로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고있다.

황주군당위원회, 청단군당위원회, 만포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공로자강연강사들에게 육대용증폭기와 여러가지 악기를 보장해주고 강사북도 일식으로 마련해주어 그들이 당초급선전일군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강연선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김형직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은 군당집행위원들에게 강연강사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기 위한 분공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직무용승용차와 방송선전차를 강연선전에 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천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은 공로자강연강사들의 가정생활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 생일 80돐을 맞는 한 강사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에게 조선바지저고리감과 많은 후방물자를 안겨주었다.

신포시당위원회, 화대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시,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도 로병, 공로자강연강사들의 사업과 생활형편을 자주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주고있다.

이런 뜨거운 믿음속에 지금 전당적으로 2 770여명의 로병, 공로자강연강사들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중을 충정의 200일전투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는 강연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장 철 범

극악한 대결망발을 늘어놓은 박근혜역도의 교활한 속내를 까밝힌다

날마다 미치광이의 행악질로 세상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내고있는 박근혜역도가 또다시 알뛰도 가리지 못하고 구린내나는 악담을 늘어놓아 여론의 못매를 맞고있다.

지난 1일 그 무슨 《국군의 날 기념식》이라는데 우거지상을 하고 나타난 역도년은 제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광수에 딱 들어찬 동족대결과 적대의 독기를 그대로 쏟아냈다. 년은 독사의 혀바닥을 날름거리며 우리의 정정당당한 핵억제력강화조치들에 대해 조선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무모함》으로 매도하였는가 하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될것》이라는 악담질을 해대다 못해 《북이 남쪽국민에게 핵사용을 공언했다.》는 헛나발까지 함부로 불어댔다. 지어 역도년은 무엄하게도 《공포정치》니, 《인권유린》이니 하고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갖히 모독하면서 《탈북》을 선동하는 미친 나발질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저들의 추악한 친미굴종정책의 산물인 《싸드》배치망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방어적조치》니 뭐니 하는 뻔뻔스러운 궤변으로 합리화하면서 《단합해야 한다.》느니, 남조선을 《지켜야 한다.》느니 하는 카소로운 넉두리도 늘어놓았다.

정신이 혼돈할대로 혼돈하여 사물현상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고 극심한 환각증세에 사로잡혀있는 늙다리년이 오뉴월 마파람에 돼지꼬리 놀듯 어지럽게 놀아대는것은 새삼스러울것이 없다. 사실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취해지는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들에 박근혜역도가 너무도 혼비백산하여 홍씨를 갈기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다. 《국무회의》니,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니 하는 모의판을 계속 펼쳐보았댔자 아무런 대책도 찾지 못하게 되자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상대가 누구이든 가림없이 가랭이를 부여잡고 《심각한 북핵위협》에 시달리고있는 저들을 도와달라느니, 지금을 놓치면 《북핵공포에서 벗어날 기회》가 영영 없다느니, 《생사존망의 비상시국》이니 하며 추레하고 가련한 몰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있는 박근혜이다.

하지만 이번에 년이 공개석상에서 그 무슨 《기념사》라는 외피에도 어울리지 않게 지금까지의 모든 반공화국악담을 한바리에 쓸어모아 악의에 차서 짖어댄것은 역도의 대결광기가 도수를 넘을대로 넘었으며 그야말로 이제는 칼끝고 마지막뛰기를 하려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 각계가 역도의 망언을 두고 《직접적, 공격적기념사》, 《가슴섬뜩하고 위험천만한 선전포고》 등으로 락인하며 규탄해나서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역도따위가 천백마디 요설을 뱉아낸들 사태가 달리 될수는 없지만 그 더러운 주둥이로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내외여론을 심히 어지럽히고있는 이상 그 요사스러운 궤변에 깔린 교활한 속내를 다시금 명백히 발가놓지 않을수 없다.

당당한 핵보유국,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강성번영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에 전률한 산송장의 비명소리

이번에 박근혜는 《북이 핵무기의 고도화와 소형화를 추진》하고있으며 이러한 현실이 저들에게는 《큰 위협》이라느니, 《위중한 상황》이라느니 하고 비명을 질러대며 그 무슨 《신속하고 강력한 응징》과 《북지역에서 발생할 우발상황》에 《대응할수 있는 만반의 준비》에 대하여 법석 고아댔다. 귀많은자 제 그림자보고도 놀란다고 박근혜의 추태야말로 신통히도 그 꼴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역도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국가핵무력의 비약적강화와 그로 인한 정세의 근본적변화를 결코 부정하려 하지 않는다. 나라의 위력이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폭발적으로 상승고조되고 시대의 면모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지구상 그 어느 나라와 민족도 당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살의 봉쇄망이 이 땅을 동여매고있지만 그것을 단 한번의 힘찬 발구름과 태동으로 산산조각낸 그 모습은 인류가 전설속에서 그려오던 철의 거인을 방불케 하고있다. 전화위복의 기적으로 거듭되는 재난을 가시고 무릉도원을 펼치며 최악의 여정일수록 더 힘차게 솟구쳐오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해 온 세계가 인정하고있으며 그 양양한 전도에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있다.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완전성공에 이어 핵탄두폭발시험의 대성공앞에 더이상 할 말도, 할바도 못 찾고 련일 입씨름으로 세월을 보내고있는것이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다. 오늘은 《군사적선택》을, 래일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또 다음날에는 《초강도제재》를 운운하며 번갈아 주패장을 내보이고있지만 그 모든것을 순간에 휴지장처럼 만들만능의 수단과 방안을 다 갖춘 우리는 배심든든하게 원쑤들을 내려다보고있다.

초보적인 사리와 분별력도 없고 대세도 분간할줄 모르지만 오직 동족에 대한 시기와 악심만은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박근혜역도로서는 저들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번져지는 현 사태앞에서 금해맞게 되였다. 간도 쓸개도 다 꺼내주며 우리를 암살해달라고 하내비처럼 섬겨온 미국상전마저 국가핵무력완성의 최종관문을 통과한 우리의 눈부신 비약앞에 속빈 허풍이나 쳐대며 제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려고 분주랑을 피우고있으니 그 하수인인 역도년의 절망과 공포, 피해망상증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눈앞의 현실에 뱀이 뒤틀림대로 뒤틀린 박근혜역도가 머리속에 떠오른 환각을 기정사실이라고 우겨대며 《공포정치》니, 《굶주림과 폭압》이니 하고 우리의 존엄높은 영상에 먹칠을 해보려고 발버둥질치고있는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가소로운것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십여년전 제발로 찾아와 제눈으로 보고 제귀로 들었던 우리 공화국의 현실에 대해 그처럼 완전히 부정하며 악담질만 해대는 박근혜에게 한가지만 권고하고싶다. 가뜩이나 알락한 입뚜껑이 다 닳도록 그 누구의 《체제불안정》이니, 《삶의 질》이니 하고 떠들기 전에 이 땅의 진실을 다시한번 똑똑히 알라는것이다.

가는 곳마다 일떠선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중등학원의 원아들에게, 멀쩡지의 신선처럼 살고있는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천재지변을 당하였지만 당의 따사로운 온정속에 일떠선 만복의 보금자리에서 웃음꽃을 피워가는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후대사랑, 미래사랑이란 무엇이며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란 무엇인지 확인해보라는것이다.

《반공》을 《국시》로 한 애비 박정희가 북에는 《얼굴이 빨갛고 머리에 뿔이 난 사람》들이 살고있다는 허황한 랑설로 남조선인민들속에 동족적대관념을 집요하게 류포시켜왔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딸년은 한수 더 떠서 우리의 사상과 제도, 정권을 《반인륜적》이니, 《공포정치》니 하고 미친듯이 헐뜯고 우리 인민의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그 무슨 《삶의 질》과 《참혹한 실상》으로 외곡하고있으니 과시 괴졸은 속일수 없고 뛰는 애비에 나는 딸년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하지만 천백마디의 요설로써도 절대로 어지럽히고 가리울수 없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본질이고 참모습이며 위력이라는것을 박근혜역도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막다른 지경에 이른 통치위기를 해소해보려는 교활한 술책

이번에 박근혜년이 《북이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있다느니, 《내무분렬을 통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려 한다느니 하는 당치도 않은 궤변을 장황하게 늘어놓은것은 우리를 걸고든 악담질이 무엇을 노린것인가를 명백히 말해준다.

사실 박근혜역도는 지금 그 어디에 혓눈을 팔 처지가 못된다.

역도가 국도의 정치적무능과 시대에 역행하는 독재통치,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난파선으로 만들어놓았다는것은 무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수천만 인민들의 생존이 벼랑끝에 내몰려 해마다 《극적》 포기자, 자살자, 이민자수가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지옥같은 남조선》을 탈출하는 행렬이 줄을 잇고있다.

한편 박근혜를 두목으로 하는 보수집권세력의 부정부패는 극도에 달하여 그 썩은 냄새가 남조선땅을 짝 뒤덮고있다.

정윤회사건, 성완종사건 등 온갖 추문이 아직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우병우사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사건 등 박근혜와 직결된 특대형부정부패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와 세상을 들었다놓고있다.

오죽하였으면 지금껏 보수《정권》의 손발노릇을 해온 매문언론들까지 썩어 문드러질대로 문드러진 박근혜《정부》를 가리켜 《거대한 범죄집단》, 《부정부패진렬장》이라고 지면을 아끼지 않고 아유조소하며 공격해나서고있겠는가.

박근혜는 수장되여가는 난파선의 한톤귀퉁이에 간신히 매달려있는 선장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와 함께 보수《정권》의 운명도 시시각각 꺼져가고있다.

초보적인 지적능력이 있다면 무너져가는 오늘의 남조선사회를 위기에서 구출할 방도부터 찾아야 하는것이 순리이고 순차일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역도는 철면피하게도 제눈앞의 현실은 덮어두고 그 무슨 《자유의 터전》이니 뭐니 하며 《탈북》하라는 개나발까지 공공연히 불어대고있으니 이처럼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온 남조선사회를 도저히 구제할수 없는 말세기적인 암흑세상, 인간도살장으로 만들어놓은 박근혜역도가 동이 닿지도 않는 파렴치한 궤변을 집요하게 늘어놓고있는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원래 박근혜는 비명횡사한 애비의 《정치적명예를 회복》해보겠다고 수십년동안 독을 쓰며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쓴 악녀이다.

박정희에게는 그래도 딸년이라도 있어 《명예회복》이니 뭐니 하는 말이 나오지만 집권기간 온갖 악정으로 최악만을 지지른 박근혜는 퇴임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고 누구에게 일신을 의탁하기도 힘들게 되여있다.

더우기 권력의 단맛을 볼대로 본 박근혜로서는 겨우 발을 들여놓은 청와대최마밑을 떠나기가 죽기보다 더 싫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로운 잠자리에서 재집권의 개꿈을 매일같이 꾸어대고있는 청승맞은 늙다리로파는 박정희역도가 높아가는 만 《정부》 기운을 《국가비상사태》의 선포로 억누르고 그 어과로 장기집권의 야망을 실현한것처럼 자기도 《북의 위협》과 《도발》을 걸고 《비상사태》를 광고하여 최악의 현 통치위기를 어떻게 하나 모면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역도는 오산하고있다.

흰것을 검다고 우겨대며 우리를 헐뜯어댄다고 하여, 검은것을 희다고 생억지를 부려며 사람 못살 생지옥을 미화분식한다고 하여 과연 어떻게 치닫는 박근혜《정권》의 가련한 처지는 달라질수 없으며 이미 《사용금지》처분이 내려진 쓰레기보수《정권》이 다시 태어나는것과 같은 비극적사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유신》독재자에게 무참히 짓밟혀 목숨을 잃은 수많은 령혼들이 배회하고있는 남조선땅에서, 보수《정권》의 반인민적악정에 수많은 인민들이 침을 뱉고 돌아선 사회에서 제 애비 찜쪄먹는 대결악녀의 《소청》이 제아무리 간절하다 한들 결코 통할리 만무하다.

오늘의 남조선사회를 최악의 위기상태에 빠뜨려놓은 장본인인 천하의 요물 박근혜가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쓰고있는 한, 이런 보수의 잔당들이 권력의 맛을 쥐고있는 한 차례질것은 재앙이고 불행뿐이라는것을 이미 진저리나게 체험한 남조선인민들이다.

박근혜가 보수지지기반을 철석같이 믿고있지만 그들이 과연 자기자신들의 목숨과 리익마저 위태롭게 하는 늙다리광녀를 계속 떠받들겠는가 하는것이다.

날이 갈수록 더더욱 엄청난 재앙을 몰아오는 미친년을 추종할 사람은 몇몇 정신나간 《내시》나 《환관》나부랭이들밖에 없으며 그 어떤 오그랑수를 써도 《선거의 녀왕》이 《폐배의 녀왕》으로 전락되는것은 시간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동족대결정책의 실패를 가리우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로 몰아넣은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교활한 기만극

박근혜는 이번 《기념식》에서 《북에 한층 강화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느니, 《국제적고립이 갈수록 심화될것》이라느니 하고 떠벌이며 극악무도한 대결적정책을 다시금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것은 극단적인 대결일변도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전면파국에 몰아넣고 민족적화해와 통일의 길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만고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가 집권이후 말로는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민심의 버림을 받은 리명박역도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펴겠다고 떠설하며 《신뢰프로세스》니, 《통일대박》이니 하고 떠들어댔지만 그것이 본질에 있어서 《북붕괴》를 목표로 하는 악랄한 대결정책이라는것은 이미 드러남대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이후 박근혜역도는 뒤집어쓰고있던 양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표독스런 암여우의 상통을 그대로 드러냈다.

《북정권교체에로의 대북정책전환》을 공개적으로 떠들며 《참수작전》이니, 《집무실타격》이니 하는 극히 도발적인 대결망언도 서슴지 않았고 《사상 류례없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고 피를 물고 날뛰였는가 하면 《더이상 대화는 없다.》느니, 《끝장전의》니 뭐니 하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무분별한 망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제적인 《대북압박공조》를 구실로 6.15시대의 마지막상징인 개성공업지구를 전면폐쇄한것도, 렁제르병까지 때맞고 머나먼 아프리카나라들에까지 찾아가 돈을 뿌려대고 갖은 아양과 추태를 다 부리며 《제재와 압박에 동참해달라.》고 구걸질한것도 박근혜역도이다.

《6개월이면 제재효과가 나타날것》이라고 고대하면서 조국을 배반하고 도망간 몇몇 인간쓰레기들을 끼고앉아 《북붕괴조짐》이니 뭐니 하고 호들갑을 떨어댄 역적패당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대결미녀의 대갈통속에 그려졌던 《북붕괴》의 어지러운 그림은 주체조선의 만리창공에 황홀한 비행운을 새긴 《화성-10》과 《북극성》의 장쾌한 폭음, 지구를 뒤흔든 핵탄두폭발시험의 뇌성으로 산산이 깨여져나가고말았으며 오히려 북남관계파국과 긴장격화의 장본인인 역도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지주와 규탄만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지금 북남사이의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의 모든 통로가 완전히 가로막히고 대결과 긴장, 전쟁위기만이 격화되는 엄중한 정세를 두고 보수세력내부에서도 비난이 고조되고있다.

《남북관계의 현 주소는 박근혜의 자화상》, 《동족대결광이였던 제 애비도 무색케 할 악마같은 년》…

날마다 터져나오는 이런 항의와 규탄앞에서 박근혜역도는 할 말이 없게 되여있다.

《대북정책》으로 초래될 참혹한 후과를 그토록 우려해온 남조선 각계층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앞장에서 피눈이 되여 동족대결에 지랄발광해온 박근혜년으로서는 돌아설래야 돌아설수도 없고 더 나갈래야 나갈수도 없는 막다른 처지에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무작정 반공화국대결적기를 부려대며 자기가 선택한 모든것이 옳다고 우겨대고있는것이다.

하지만 박근혜년의 추악한 동족대결정책의 정체는 이미 여지없이 드러났으며 시대와 력사, 인민은 역도의 운명에 종말을 선고하였다.

박근혜역도가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길 바란다.》는 황당하고 가소로운 수작을 주제넘게 늘어놓았는데 그것이야말로 바로 역도년 자신에게 꼭 들어맞는 말임이 틀림없다.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외면하고 조국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은 박근혜년은 력사의 가장 가혹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반전, 반미, 반《정부》기운을 억누르기 위한 궁여지책

박근혜는 이번 망발에서 《〈싸드〉배치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조치》이며 《북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전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참으로 기련 벼룩이도 양천대소할 황당무계한 망발이 아닐수 없다.

《싸드》가 미국의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의 대표적수단이라는것은 이미 내외에 공인된 사실이며 그따위 불량품으로 우리의 불세례를 막아보겠다는것이 좋이갓쓰고 불붙는 집에 뛰어드는것만큼이나 어리석은것으로 된다는것을 모를 사람이 없을것이다.

지금 남조선전역에서는 미국에 명줄을 걸고 민족을 팔아 추악한 제 목숨을 부지해보려는 박근혜역도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거세찬 용암이 되여 터져나오고있으며 박근혜의 봉우니에는 불이 달리였다.

성주를 비롯한 《싸드》배치지로 지른되는 지역들은 물론 그 어디서나 《〈싸드〉배치 절사반대》, 《미국만을 위한 〈싸드〉는 필요없다.》, 《〈싸드〉피물과 박근혜를 추방하라!》, 《〈싸드〉대신 남북대화》라는 반미, 반박근혜함성이 련이어 터져나오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혁전쟁의 화근인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평화와 안정, 민중의 생명과 리익을 무참히 짓밟고있는 미국과 친미매국노들을 반대하여 일떠선 자신들이야말로 오늘의 《독립군》, 《의병》이라고 하면서 투쟁기세를 올리고있다.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반대하여 개성한 흥제지에 단 며칠사이에 10여만명이 서명하여 세상을 놀래웠는가 하면 《싸드》반대초불투쟁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오늘까지 매일 이어지고있는 현실을 박근혜는 극도의 두려움속에 바라보고있을것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이 벌어지는 거리들에서는 이런 노래가 애창곡이 되여 불리워지고있다고 한다.

《그네(박근혜)는 아니야 그네는
아니야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네는 아니야
…》

여기에는 박근혜역도를 반드시 최후심판장에 끌어내고야말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결연한 의지가 그대로 어려있다.

실로 오늘 남조선에서는 박근혜대 전체 민중이라는 대결구도가 형성되였으며 언제 어디서 박근혜의 정치적명줄을 끊어놓을 비수가 날아들지 모를 험악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유신》독재로 무제한한 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오만방자하게 날뛰다가 개죽음을 당한 제 애비처럼 박근혜가 격노한 민심에 의해 너부러지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기에 매일같이 남모르게 바들바들 떨면서 악몽에 시달리는 박근혜이다.

오죽했으면 얼마전에는 수금줄개들앞에서 《입술도 바짝바짝 마르고 힘들지만 이미 시작했는데 중간에서 그만둘수도 없고 끝까지 하자.》고 가련한 제 처지를 스스로 한탄했겠는가.

매일같이 머리를 싸쥐고 생각을 굴려봐야 신통한 묘책을 짜낼수 없게 된 청와대암독사는 《〈싸드〉배치는 민중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니 뭐니 하고 북기를 부려대고 《북이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있다.》, 《내무분렬을 통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려 하고있다.》는 엽토당토않은 망발로 반 《싸드》기운을 가라앉히려 하고있다.

하지만 지금껏 남조선인민들을 《개, 돼지》로 치부하고 걸핏하면 《테로분자》니, 《폭도》니, 《불순세력》이니 하고 모독하던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간교한 거짓말에 속아넘어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박근혜년이 《민중을 지킬수 있는 필요한 모든 실질적대책을 강구해나갈것》이니 뭐니 하지만 역도가 피를 물고 지키려는것은 자기의 더러운 목숨이고 권력이며 장기집권야망일뿐이라는것을 남조선인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있다.

역도는 그 어떤 기만술수로도 제년에게 쏠리는 분노한 민심의 화살을 피할수 없다.

박근혜패당은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제아무리 발악해도 청와대지붕우로 타번지고있는 항거의 불길을 절대로 피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의와 평화의 보검이고 민족번영의 무기인 우리의 핵억제력은 결코 우리와 한피줄을 잇고 영원히 이 땅, 이 강토에서 운명을 함께 하며 살아갈 우리 겨레, 우리 동포들을 겨냥한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과 략탈, 지배와 간섭의 흉악무도한 마수를 계속 뻗치고있는 외세의 머리우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 자주적으로 통일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미국을 하내비처럼 떠받들며 민족을 반역하는 박근혜와 같은 역적무리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의의 핵무력을 천백배로 강화하고있다.

자비를 모르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핵타격이 청와대에 가해질 때에야 박근혜가 입질을 그만둔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고 가소로운 자멸적망동으로 될것이다.

박근혜에게 이제 남은 단 한가지 선택이 있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떻게 적대세력의 제재와 압박책동을 짓부시며 어떻게 더욱 눈부시게 솟구쳐오르는가를 자중, 자숙하여 지켜보는것뿐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그 어떤 진실도 없으며 엄청난 화를 몰아오는 박근혜년의 교활한 너두리질에 각성을 높여야 하며 역적패당의 정치적명줄을 하루속히 끊어놓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오늘의 하루 한순간을 놓치면 매일에는 결코 만회할수 없는 재앙과 불행이 자신들에게 차례진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최 문 일

위험수위를 넘어선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무모한 《선제타격》광기에 경종을 울린다

【평양 10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조선반도정세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광기에 의하여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에 놓여있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준동이 실전단계에서 벌어지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며칠전 미국은 미제침략군 해군 유도탄구축함 《스프루언스》호와 해상순찰기를 조선동해에 들이밀어 괴뢰해군 유도탄구축함들과 함께 우리의 최고수뇌부청사와 녕변핵시설, 주요전략로케트기지들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실전훈련을 벌려놓았다.

지상목표물들까지 만들어놓고 순항미싸일들로 《정밀타격》하는 절차와 방법을 공개적으로 숙련한 이 훈련을 두고 어른들은 《실제작전수준의 정밀타격훈련》이라고 그 모험성을 폭로하였다.

미국 알라스카주에서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 뉴질랜드군, 나토공군의 공중무력을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카상한 《레드 플래그 알라스카 16》 공중정밀타격훈련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현재 조선반도주변해역으로 기동중인 《로날드 레간》호핵항공모함타격단을 투입하여 벌릴 련합해상훈련도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핵 및 전략로케트기지들에 대한 《선제타격》에 목적을 두고있다.

미국은 괌도 엔더슨공군기지로부터 핵전략폭격기 《B-1B》 2대를 완전무장상태로 군사분계선상공과 남조선 오산공군기지에 련이어 투입한데 이어 핵전략폭격기 《B-2A》와 《B-52H》를 포함한 각종 공중무력을 남조선에 상시전개시키려는 흉심도 언론에 공개한바 있다.

남조선괴뢰들도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골자로 하는 《대량응징보복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축타격체계》를 수립하고 정밀타격미싸일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으며 《참수작전》수행에 필요한 특수부대를 편성하고 실동훈련을 맹렬히 벌리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지금까지 《년례적》이요, 《방어적》이요 하던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선제타격》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며 그 실행에 광분하고있는것은 조성된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지금 승냥이무리들이 상투적으로 뒤집어쓰고있던 양의 가면마저 벗어던진채 분별을 잃고 극도로 포악무도하게 날뛰고있는것이다.

엄중한것은 이러한 군사적움직임이 백악관과 청와대에서 꾸며낸 모험적인 《북침선제타격론》에 따른것이라는데 있다.

지난 9월 21일 미국의 전쟁피수 오바마가 유엔총회에 나타나 우리더러 그 무슨 《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목에 피대를 세운데 이어 미중앙정보국 장관, 미특수작전군사령관,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 등 전쟁사환군들이 모의를 벌려놓았다.

어기서는 《군사적선제타격이 가장 중요한 선택》으로 된다는것이 최종확정되였으며 불의적인 기습타격에 필요한 《폭넓은 군사전력보강》과 《대응능력강화》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되였다고 한다.

박근혜패당 역시 괴뢰군 1제대 부대들을 들이치며 《일격일타를 가하여 북을 통채로 무덤으로 만들어놓아야 한다.》며 게거품을 물고 발광해대고있다.

세계최대의 열점수역, 발아오른 화약고로 공인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험적인 군사적광기는 정세를 최악의 위기국면에로 몰아가고있다.

호전광들의 《선제타격》기도가 현실화되고있는 험악한 사태는 결전상태에 진입한 우리 군대로 하여금 치솟는 증오와 보복열기를 걷잡지 못하게 하고있다.

감히 우리 운명의 전부인 최고수뇌부를 《선제타격의 대상》으로 운운해대는 천인공노할 그것만으로도 우리 군대의 분노를 더이상 억누를수 없게 되였다.

우리 총참모부는 이미 우리의 신성한 령토와 령해, 령공에 대한 사소한 침략징후라도 포착되는 즉시 도발의 본거지들을 짓뭉개버리겠다는것을 엄숙히 천명한바 있다.

미국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모든 침략기지들을 타격권안에 넣고있는 우리 군대에게 있어서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 벌려놓는 군사적망동들을 제압하는것은 식은죽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다.

우리의 1차 보복대응타격에는 핵무기나 로케트와 같은 전략무력이 동원될 필요도 없다.

일단 섬멸의 불을 토하면 제일먼저 될것은 침략자 미국놈들이며 순식간에 완전불바다로 화하고 완전재더미에 묻힐곳은 남조선땅이다.

침략자, 도발자들은 우리의 타격권안에 더 가깝게 기어들수록 비참한 운명의 시각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이것이 북침열에 들떠있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에게 보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준엄한 경고이다.

국민을 짓밟는 폭력을 중지하라

남조선 각계 인사들 시국선언

박근혜패당의 살인폭력에 의해 사망한 백남기농민에 대한 부검시도중지와 피뢰정부사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집회가 9월 29일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500여명의 카톨릭교, 그리스도교, 불교, 원불교 등 4대종단 종교인들과 1 0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성원들, 350여명의 법조계성원들을 비롯한 학자, 문화예술인, 로동자, 농민, 빈민, 녀성, 청년학생 등 3 000여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백남기농민의 죽음은 권력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라고 주장하였다.

백남기농민과 가족들은 300일이 넘는 기간 《정부》로부터 단 한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하였으며 책임자처벌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찾아볼수 없었다고 그들은 분노를 터쳤다.

집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카톨릭농민회 회장 정현찬은 옛날부터 우리는 이웃의 초상도 함께 슬퍼하였는데 이 《정권》은 이런 따뜻한 정은 찾아볼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잘못을 뉘우치고 《대통령》이 사과하여야 하겠으나 저들은 도리여 백남기농민을 두번 죽이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눈물을 흘리며 백남기농민의 딸 백민주화는 순수한 국민들을 1년가까이 괴롭히고도 우리에게 슬픈 시간조차 주지 못하는가, 유가족은 사망원인이 명확한 아버지의 시신이 경찰의 손에 무검되는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화가 림옥상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투쟁당시 백남기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는 장면 등을 담은 작품 《상선약수》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하며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런 물을 가지고 대포를 만들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너무나 치가 떨리는 일이라고 성토하였다.

민주로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은 단체가 앞장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백남기농민의 한을 풀기 위해 투쟁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백남기농민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례의를 다해 조의를 표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의 핵은 폭제를 마스는 인민의 힘이며 민족번영의 억만년미래이다

선군의 핵위성에 원쑤들이 전률하고있다. 악의에 찬 중상과 위협공갈의 성명, 분주스러운 쑥덕공론으로 세계는 소란하다. 시시각각 저들의 명줄을 조이는 우리의 핵공격능력에 당황망조한 미국은 그 무슨 전방위적인 제재강화에 대해 떠벌이며 히스테리적인 대결광기를 드러내고있다. 여기에 온갖 불순세력들이 맞장구를 치며 우리에 대한 고립의 포위망, 압살의 봉쇄망을 더욱 조이기 위해 북닥소동을 피우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단순한 제동이 아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생존권을 강탈하고 이 행성의 정의와 진리를 말살하며 예속과 불평등을 강요하려는 이른바 흉악한 원쑤들, 그에 공조하는 추악한 세력과의 판가리싸움의 예고이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장장 수십년을 헤아리는 제재와 봉쇄속에서 자기의 운명을 지켜 자기의 힘을 키워온 우리가 원쑤들이 줘쳐대는 한갖 잡소리에 놀라서, 봉쇄의 그물을 조인다고 해서 핵을 포기하고 병진의 길을 바꾼다는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있을수 없다. 자주권수호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당당했으며 무자비한 우리 공화국이다. 감히 우리의 자존심과 의지를 저울질하려드는 무지스럽고 시대착오적인 얼간망둥이들은 조선인민이 무엇때문에 허리띠를 조이며 핵을 쥐었으며 이 땅에서는 왜 《제재교리》가 통하지 않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제재는 미국이 침략적인 대외정책실현에서 중시하는 기본수단의 하나이다. 패권야망에 환장한 미국은 저들 독주의 세계질서수립을 위해 군사적위협공갈과 함께 제재몽둥이를 마구 휘둘러대고있다. 그 대상은 례외없이 미국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미국의 리익에 저촉된다고 간주하는 나라들이다. 우리 공화국이 창건후 지금까지 가혹한 제재대상으로 되고있는것도 전략적요충지에 있는 지정학적위치에 앞서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미국의 아시아지배전략 나아가서 세계제패전략실현에 장애로 되기때문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는 국제관계사에 전무후무한것이였다. 독립국가가 새로 탄생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맺는것이 하나의 국제관례이다. 미국은 리념과 제도가 다른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었다. 애당초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미국은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뒤집어엎으려는 목적밑에 우리에 대한 적대시책동을 가증시켜왔다. 우리를 반대하는 제도적, 법률적장치들이 구축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버리기 위한 군사적도발이 로골적으로 감행되였으며 우리를 고립시키고 질식시키기 위한 경제제재와 국제적압박이 끈질기게 지속되여왔다.

8.15해방과 함께 시작된 미군의 불법, 비법의 남조선강점은 우리 민족의 쓰라린 분렬의 시작인 동시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제재와 봉쇄의 시작이였다. 한때 사람들은 세계전쟁사에 가장 가혹한 제재의 대명사로 베닌그라드봉쇄를 꼽았다. 허나 그 내용과 강도, 리행기간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동처럼 잔인무도하고 뿌리깊으며 극악한 례를 인류는 알지 못하고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나 봉쇄는 상품배척으로부터 시작하여 무역, 투자를 거쳐 금융에 이르는 방식으로 강행되고있다. 우리에 대한 제재와 봉쇄는 이러한 순차적단계를 뛰여넘어 금융제재를 포함한 대외경제관계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되고있다. 현재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 적용하고있는 각종 제재관련법과 조치들은 무려 수백가지에 달한다.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국제기구까지 발동하여 감행하는 대조선제재와 봉쇄책동은 철두철미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다는데 그 비렬성과 반인륜적범죄성이 있다. 미국은 화학공업에 필요한 설비들은 2중용도로 리용될수 있다, 화장품원료는 화학무기에 쓰일수 있다, 쌀은 군량미로 전용될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무역활동을 각방으로 막아나섰다. 스키장시설과 같은 체육기자재 지어 철부지아이들의 놀이감까지 제재의 주요대상으로 되였다. 이것은 날로 악랄해지는 원쑤들의 제재와 봉쇄가 우리의 민심을 파탄으로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와의 대결전에서 백전백패의 치욕만을 체험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민심을 흔들어볼 흉심밑에 그 실행에 달라붙었다. 악랄한 제재소동에 발맞추어 제단식으로 확대되는 반공화국《인권》소동도 여기에 복종되고있다. 적대세력들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수 없다고 위협공갈하는 동시에 다른 길을 선택하면 잘살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회유도 하고있다. 년대와 세대를 이어오는 가혹한 제재와 봉쇄로 한 주권국가의 정상적인 발전과 인민의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것을 유린해온 인권의 교살자들이 이제 와서 그 무슨 동정심이라도 폭풍듯이 경제발전에 대해 운운하고 인민생활이 어쩌고저쩌고하며 잡소리를 줴쳐대는것이야말로 위선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다른 민족의 피와 땀을 빨아먹으며 파렴치하게 생존해가는 제국주의괴수 미제는 원래 남을 기만하고 짓밟고 해치는데 이골이 난 인간세계의 악한이다. 남을 기만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더러운 몰골을 가리울수 없고 생존할수 없는 이 흉물은 지구상의 재부는 미국의 독점물이 되여야 하며 누구든 저들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는 강도적인 론리로 세계를 평정하려들고있다. 지금껏 워싱톤의 모략가들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허위와 날조로 모함하여 짓뭉갠 파국상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인류에게 해방화를 들씌운 유일한 핵전범자이며 핵공갈로 무고한 인민들을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는 악의 제국이 《인권》을 입에 올리고 우리의 핵포기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21세기의 비극이고 우리 행성의 수치이다.

우리는 결코 미국과 같이 인류를 해치는 독재의 핵을 가지기 위해 핵보유국이 된것이 아니다. 세계정치흐름을 좌우지하는 몇몇 강대국들의 대렬에 들어서기 위해 핵을 가진것도 아니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공갈, 극악한 봉쇄속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 인민의 생존권을 위해 핵보유의 길에 나섰다.

돌이켜보면 우리 공화국처럼 핵보유가 민족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운명적인 문제로 나선 나라는 없었다. 지금 섬나라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대한 미국의 원자탄투하로 세계유일무이한 원자탄피해국이라고 하지만 우리처럼 옹근 하나의 민족이 장구한 세월 가증되는 핵위협속에 시달리며 현실적인 체험으로 살아가고있는 나라는 없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국놈군 사령관이였던 맥아더는 《조선 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라고 폭언하였다. 악몽과도 같은 원자탄공갈은 조선반도의 북과 남으로 갈라져 불행을 겪는 수백만에 달하는 흩어진 가족들을 산생시켰으며 그 고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있다. 1년내내 눈앞에서 전략자산들을 짱그레 동원하여 광란적으로 벌리는 북침핵전쟁소동속에서 우리 인민은 언제 한번 평화로운 생활을 마음껏 누려보지 못했다. 우리 인민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시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발기하였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도 가입하고 조미기본합의문도 체결하였다.

그러나 혜광신자들은 혜려해자들의 고충같은것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공개적으로 핵선제공격대상자명단에 올려놓고 핵위협을 더한층 강화하였다. 오늘은 《싸드》라는 괴물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삼천리강토를 방사능먼지만이 흩날리는 죽음의 페허지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다.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고넘으며 우리 인민은 폭제의 핵에는 정의의 핵으로 대응하는 길만이 생존권수호의 유일무이한 방책이라는것을 뼈에 새기였다.

핵은 우리 인민의 선택이다. 아직 우리의 생활은 부유하지 못하고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난관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자연의 횡포도 우리의 앞길을 막고있다. 조국의 북변 두만강연안에서 전례없는 돌풍이 몰아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져 수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당장 들이닥칠 강추위앞에서도 북부지구 인민들이 비관은커녕 9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진 핵위성에 열렬히 호응하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피해복구전투에 용약 떨쳐나선것은 핵에 대한 우리 인민의 남다른 애착과 믿음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자연재해로 파괴된 집은 다시 지을수 있어도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은 다시 찾기 어렵다는것을 피눈물나는 망국사를 통해 뼈에 새긴 우리 인민이다. 자주와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한걸음, 두걸음의 양보가 더 큰 파멸과 동란에로 이어진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며 엄혹한 현실이다. 외세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나라들을 보라. 굴복한 대가로 주권이 강탈당하고 인민이 집단적인 피난민, 륜랑아가 되여 끝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은 세계앞에 피의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금유으로 얻은 번영, 자주권이 유린된 평화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것이 아니다. 우리 인민은 원쑤들이 강요하는 핵재앙을 막고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해 주체의 핵을 자기의 생존권으로 받아들였다. 만석같은 평화를 떠나 진정한 발전과 행복에 대해 론할수 없기에 조선의 녀인들이 쌀알마저 세어보던 그처럼 간고한 나날에 선군을 정화로, 창조와 건설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였다. 만민이 경탄하는 타격력이 높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각종 핵탄두와 탄도로케트도 귀중한 인민을 굳건히 보위하고 피로써 쟁취한 모든 사회주의재부들을 수호하며 민족의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를 지키기 위한것이다.

조선이 무슨 돈과 잠재력이 있어 련속 핵위성을 올리는가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제재목록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수소탄은 핵융합의 산물이다. 핵융합보다 거대한것이 우리 인민의 불굴 힘이다. 한마음한뜻으로 일떠선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피와 땀을 쏟고 전쟁과 죽음까지 각오하며 다져온 인민의 수소탄이여서 조선의 핵이 강위력한것이며 천만군민이 걷는 병진의 길이 억척불변한것이다. 이제 또다시 허리띠를 열백번 조이는 한이 있어도 자위를 위해서는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핵시험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것도 해야 한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요구이다.

아직까지 조선의 핵을 협상탁우에 올려놓고 론의할 정치적흥정물이나 경제적거래물로 삼으려고 날뛰는자들의 망동은 정신착란증에 걸린 현대판 돈 끼호테무리들의 추태에 불과하다.

제재라는 말에 공기처럼 익숙된 우리에게 있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소리가 별로 새삼스럽게 들리지도 않으며 위협적으로는 더욱 생각되지 않는다. 귀간지럼게 그 무슨 《효과성》에 대해 운운하는자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제재와 압박이라는 미궁을 향해 계속 나가겠으면 어디 나가보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그 무엇도 자주로 빛나는 민족번영의 래일에 살려는 우리의 힘찬 전진을 멈춰세울수 없다.

우리 혁명의 전 력사는 걸음마다 달려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을 자력자강으로 쳐갈기며 승리만을 떨쳐온 자랑찬 력사이다. 연길폭탄으로부터 시작된 자력갱생의 행군길에서 시대를 진감하는 불멸의 영웅서사시가 창조되고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우리 식 사회주의가 솟아났다. 오늘은 혜렬강들의 횡포무도한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고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이 되였다.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운 주체조선의 자강력은 다름아닌 락천한 수령의 령도따라 오직 자기 힘만을 굳게 믿고 자기의 지혜와 자원에 의거하여 행복을 창조하는 강용한 인민의 힘이다.

어떤 태결이든 인민과 맞서 이긴자는 그 어느때에도 있어본적이 없다. 세계를 뒤흔들고 력사를 변화시킨 수많은 흥망성쇠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인민이 서있었다. 주체사상이라는 지지점에다 일심단결이라는 지렛대를 가지면 지구도 움직일수 있다고 한 외국인사의 웨침은 그대로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격찬이며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다. 설사 유엔을 도용하여 적대세력들이 전횡과 야합, 흥정으로 만들어낸 《제재결의》로 또다시 인류의 정의와 량심을 우롱하며 우리의 걸음에 장애를 조성하려 해도 핵강국의 공민이 된 우리 인민의 높은 자존심, 자주로 만장약된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당할수 없다.

조선의 핵은 민족부흥의 담보이다.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 이후 70여년간 쉼에 한 동서랭전도 있었고 크고작은 전쟁들도 많았지만 핵무기보유국들만은 대국이든 중소국가이든 군사적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는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길밖에 없다는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식이다. 세계최강의 전쟁억제력인 수소탄까지 틀어쥠으로써 우리 인민은 마음놓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되였다. 세계가 조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있다. 강력한 지도력과 근면하고 슬기로운 인민, 풍부한 자원과 잘 준비된 과학기술력이 있으며 지난 세기 60년대와 70년대에 아시아의 손꼽히는 현대공업강국으로 도약했던 경험과 기초를 가지고있는 조선이 본격적인 상승궤도에 오르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실체로 될수 있다고 정세분석가들이 평하고있다.

우리 조국의 비약은 이미 시작되였다. 주체적병진로선을 두어해에 걸머진 인민의 전설같은 힘에 의해 원쑤들을 전률케 하는 핵방기창이 굳건해지고 전체 인민이 복된 삶을 향유하는 우리 식 경제강국, 문명강국이 날에날마다 자기의 용자를 드러내보이고있다. 위대한 당이 정해준 백전백승의 침로따라 만리마속도로 질풍쳐 내달리는 우리 인민이 핵강국의 력을 입으며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날이 분분초초로 다가오고있다.

제재와 압박의 탓에 치이어 공포와 불안의 나락에서 허우적대는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다. 어느 한 아시아문제전문가는 대조선제재는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제재후 핵개발은 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정교한 미싸일들이 남조선과 일본, 태평양지역의 미군사기지들 지어 미국본토까지 겨누고있다. 조선이 모든것을 다 각오하고 대처하였기때문에 제재는 무용지물이 된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시기 조선반도정세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일방적인 위협공갈과 그로 인해 초래된 군사적초긴장속에서 흘러왔다. 이러한 정세흐름은 역전되였다. 우리의 핵보유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에 의한 현실적인 핵선제공격태세앞에서 미국자신이 고민하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갈 출로를 새롭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미국의 언론인들까지도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다 꿰진 제재와 압박의 복통을 두려워하는 오바마정권을 《워싱톤의 정신병원》이라고 야유조소하고있다.

핵보검을 서슬푸르게 벼릴수록 우리의 존엄이 높아지고 우리의 위력은 백배해진다. 나라의 자주권도, 소중한 평화도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으로 지키고 그 위력으로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것은 영웅적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쉼의 의지이다. 파멸의 비운을 안고있는 아메리카제국이 자기의 가련한 처지도 망각한채 《제재》나발을 불고 핵전쟁도발에 날뛸수록 그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사신으로 더욱 견인불발케 하고있다. 위대한 병진로선의 산아인 조선의 핵은 날강도 미제가 마구 휘둘러대는 핵몽둥이를 무자비하게 내리쳐 부정의가 다시는 살판치지 못하게 할것이다. 평화의 성새, 사회주의의 보루로 위용떨치는 이 땅에서는 원쑤들의 압살봉세를 짓부시는 자력갱생의 마치소리,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릴것이다. 세계는 가장 정의롭고 가장 강위력한 인민의 핵을 틀어쥔 주체조선이 우리 행성의 온갖 불의를 불사르고 강권과 전횡을 깔뭉개며 어떻게 민족번영의 억만년미래를 가꾸어가는가를 가슴후련히 보게 될것이다.

배 금 희

《조선의 비행사들 황홀한 비행술로 집체적 선을 보이다》, 《특색있게 펼친 항공무대》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2016》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우리 인민과 세계항공체육전문가들, 애호가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2016》이 항구문화도시 원산시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된 소식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원산시의 《명함장》과도 같은 갈마비행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국제친선항공축전이 열리였다. 항공축전에서 조선인민군의 전투기비행사들은 최고급비행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축전조직위원회 일군들은 따쓰통신사 기자에게 김정일령도자께서 지난 시기 전투기비행사들이 높은 조종술을 발휘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국내외락하산선수 및 애호가들의 락하산강하기교, 모형항공기들의 조종비행은 축전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용 및 민용비행기들의 기교비행은 관중들의 커다란 흥분을 자아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첫 항공축전은 조선반도의 정세가 긴장한 속에서도 전례없는 규모로 성대히 진행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각종 전투기들이 집체적인 선을 보이였다고 보도하였다.

홍콩신문 《사우스 챠이나 모닝 포스트》는 특색있는 항공축전이 조선에서 펼쳐졌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이 전례없는 규모로 첫 국제친선항공축전을 개최하였다. 수십개 나라에서 온 수많은 항공애호가들과 기자들이 대단히 큰 호기심을 가지고 항공축전을 참관 및 취재하였다.

특히 인상적인것은 조선의 각종 전투기들의 아슬아슬한 초저공비행이였다.

축전의 절정은 조선의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진행한 시범비행이였다.

네데를란드의 한 사진촬영가는 조선전투기들의 집체초저공비행을 보고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대단히 황홀한 비행술이다, 참으로 멋있다고 감탄하였다.

에스빠냐의 에페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조선전투기들이 관중들의 머리우로 초저공비행할 때 외국의 항공애호가들은 다른데서는 체험할수 없는 시위비행에 환호하였다.

북조선은 유엔의 제재가 가소롭다는것을 보여주려는듯 자국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전례없는 항공축전을 진행하였다.

훌륭히 개건확장된 갈마비행장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원산지구의 관광잠재력도 과시하였다.

북조선이 영국, 카나다 등 많은 나라의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국제항공축전을 펼친것과 관련하여 일부 분석가들은 조선에 대한 제재가 실지 효과를 보고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제재속에서도 북조선이 군용 및 민용항공기들을 출격시켜 비행술을 과시한것은 미국의 무당한 제재에 끝까지 맞서나가려는 의지의 과시로 보인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들인 《이즈베스찌야》, 《네자비씨마야 가제따》, 《콤메르싼뜨》, 즈베즈다TV방송,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 만마TV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미국의 AP통신, 인터네트홈페지 《야후》도 《조선의 첫 항공축전》, 《조선비행사들 황홀한 비행술로 집체적선을 보이다》, 《특색있게 펼친 항공무대》 등의 제목으로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2016》이 성대히 진행된데 대해 상세히 전하였다.

미국은 언제까지나 눈뜬 소경노릇을 하겠는가?

브라질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브라질주제사상연구쎈터가 9월 24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정치적소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얼마전 조선이 핵탄두폭발시험을 단행함으로써 미국이 눈뜬 소경노릇을 해왔다는것이 다시금 드러났다.

어지껏 미국은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여왔다.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의 전략적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는것이 미국의 정책이였던것이다.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는 눈뜬 소경과도 같은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미국내에서도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고있다.

글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조선의 핵능력에 대한 현실인정이 없는 결정을 내리는것은 실행력있는 전략으로 되지 못하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조선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미행정부의 《노력》이 모두 실패하였다, 핵을 보유한 조선을 반대하는것이 이제는 미국에 있어서 힘에 부치는 일로 되였다, 다음기 미국대통령은 조선반도의 소용돌이에서 발을 빼는 정책을 선택하여야 할것이다고 주장한 사실을 전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보유를 선언한이래 핵무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왔다. 그 과정에 조선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으로 솟구쳐올랐고 핵탄두폭발시험에서도 성공하여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대로 필요한만큼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조선에 대한 낡아빠진 적대시정책, 시대착오적인 핵위협정책에 계속 매달려온 결과이다.

미국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대조선압살정책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조선의 핵능력은 질량적으로 끊임없이 강화될것이다.

미국은 도대체 언제까지나 눈뜬 소경노릇을 하겠는가?

【조선중앙통신】

세계적인 발전추세로 되고있는 관광업

오늘의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자원소비를 위주로 하던 경제발전방식을 생태관광발전방식으로 전환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적수입을 늘이는 효과적인 경제발전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세계관광기구가 발표한데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를 려행한 관광객은 8억 1 000만명으로서 그 전해에 비해 3 300만명 늘어났다고 한다.

세계관광기구 총시기는 세계적으로 관광업에 의해 무역과 투자가 촉진되고 많은 일자리가 조성되는 한편 하부구조가 발전하고 전반적인 경제장성이 적극 추동되고있다고 하면서 관광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락관을 표시하였다.

올해 상반년에 캄보쟈에서는 관광객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늘어난 236만명, 딴마에서는 약 169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날 관광은 점차 독자적인 산업분야로 발전하고있으며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고있다. 관광업은 자연경치나 력사유적같은것을 선전하여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부감시키면서 편의를 도모해주고 식료품과 일용품, 기념품같은것을 팔아주면서 수입을 얻는 경제부문이다. 관광은 발생초기 관광객들에 대한 관광안내봉사만으로 시작되였다. 그후 관광객운수, 숙박, 식사, 편의 및 체육문화오락봉사 등 분업들이 포괄되면서 관광업은 현시기에 와서 자체내에 여러 봉사분업과 단위들(려행사와 호텔, 식당과 상점, 관광객운수사업소, 관광지관리소 등)과 보장단위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봉사부문으로서 하나의 일체화된 경제부문체계를 형성하게 되였다.

최근년간에는 세계적으로 관광업이 봉사무역의 다른 부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장성률을 유지하고있어 여러 나라들에서 관광업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국가적관심과 투자를 집중하고있다.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하고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조치들도 강구되고있다.

또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관광객수를 늘일것을 계획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현대적인 관광시설건설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취하고있다.

잠비아대통령 에드가르 룬구는 어느 한 연설에서 기아와 빈궁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다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관광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집중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케니아에서는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10년동안 사회안전사업을 개선하고 봉사부문을 현대화할데 대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발표하였다.

베닌정부도 관광업발전을 위해 나라의 많은 민족문화유산들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감독통제하는 전문기구를 내왔으며 필리핀 역시 관광시설건설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관광제품개발에 큰 힘을 넣고있는 타이에서는 올해에 자기 나라를 찾는 관광객수가 지난해보다 7% 늘어나 사상 최고수준에 이를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사람들사이, 나라들사이의 교류와 접촉, 래왕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관광은 현시기에 들어와 단결과 평화를 도모하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으로 하여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마로끄와 쏭고, 이란과 아르메니야가 각각 관광분야에서 쌍무협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랍추장국련방과 요르단이 관광업에서 쌍무협조를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합의각서에 조인하였다.

베네수엘라대통령은 꾸바를 방문하는 과정에 꾸바와 베네수엘라가 관광업분야에서 쌍무협조를 발전시킬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새로운 력량으로 등장한 발전도상나라들은 어제날 발전된 나라들이 차지하던 관광업분야에서의 독점을 깨고 관광업을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살인마의 파렴치한 넋두리, 비발치는 저주와 규탄

오늘 미국은 《반테로전》을 세계 그 어느곳에서나 저들의 침략과 략탈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간판으로 내들고있다.

수리아에서 감행된 미군전투기들의 공격사건을 놓고서도 《반테로전》이 한갖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한 위선적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한번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았다.

얼마전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전투기들은 수리아의 데이르 알 주르도상공에 날아들어 이 나라 정부군진지에 무차별적인 공습을 들이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테로소탕》작전을 벌린다는 미군의 전투기들이 수리아정부군의 머리우에 줄폭탄을 퍼부은것으로 하여 60여명이 죽고 약 100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빚어졌다.

공습으로 혼란된 틈을 리용하여 테로분자들이 수리아정부군진지를 장악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수리아정부군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공격은 수리아와 수리아정부군에 대한 위험하고 극악한 침략행위로 되며 미국이 《이슬람교국가》와 기타 테로그루빠들을 지원하고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고 단죄하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리아에 대한 지배권수립을 노리던 미국은 《이슬람교국가》를 제거한다는 미명하에 수리아의 주권을 로골적으로 침해하는 길에 들어섰다. 테로분자들을 사촉하여 수리아정부전복에로 내보는것과 함께 《이슬람교국가》를 공습한다고 하면서 수리아령토에 마구 폭격을 가하였다. 그러면서 마치도 《이슬람교국가》소탕에서 결정적역할이나 하는듯이 으시댔다. 그러나 미국이 한것은 어느 하나도 수리아의 정세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된것이 없다. 오히려 수리아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을뿐이다.

수리아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국들은 반테로투쟁에서 수리아정부가 전과를 거둘 때마다 테로그루빠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있다고 까밝히면서 일부 렬강들이 수리아에서의 내전을 지속시키려고 각방으로 획책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1대도 아닌 4대의 전투기가 그것도 1시간나마 수리아정부군진지를 집중타격한것을 놓고 미국이 사고로 들리치는것은 한갖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랄히 비난해나섰다.

그러나 미국은 철면피하게도 《실수》라느니, 《공습이 의도적인것이 아니였다.》느니 하고 줴치면서 저들의 음흉한 정체를 가리우기 위해 허튼 요술을 피우고있다.

로씨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미국의 교활성과 철면피성을 신랄히 비난해나섰다.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은 수리아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음흉한 속심을 똑로하면서 미국이 수리아문제해결을 위한 로씨아의 협정체결을 거절한것은 수리아의 합법적인 정부를 반대하는 반정부세력의 전투력을 보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까밝혔다.

로씨야국가회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이 수리아에서 저들에게 필요한 정부를 세울 때까지 법의법칙을 다할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모든 나라들이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불안정과 피난민문제를 산생시킨데 대해 단죄하고 국제사회는 미국이 당장 수리아문제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란외무성 대변인은 미군의 공습은 수리아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된다고 하면서 수리아사태를 바로잡자면 미국의 테로지원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침략적인 군사작전들을 계속 벌려놓는것으로 하여 수리아만이 아닌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류혈참극이 끊기지 않고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8명의 경찰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책임자는 미군의 첫 공습으로 경찰 1명이 죽고 나머지 7명은 보안초소로 다시 돌아온 후 경계근무중 미군용기가 또다시 공습을 가한것으로 하여 그들모두가 목숨을 잃었다고 전하였다.

이것은 세계적범위에서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미국이 저지른 죄악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인간살륙으로 중동지역을 류혈적인 분쟁과 혼란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은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카메네이는 미국이 테로그루빠들을 지원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저지른 최대의 죄악은 세계에서 위험한 테로망을 만들어낸것이다.》라고 규탄하였다.

여러 나라의 언론들은 9.11사건후 미국이 《반테로전》의 명목하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중동을 개조하는 《민주주의》혜택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지만 지난 10여년동안 잘못된 반테로전을 해왔으며 테로가 더욱 성행해지고 《이슬람교국가》 등 극단세력들은 맹렬한 기세로 확대되였다고 미국을 비난하고있다.

미국 AP통신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린 전쟁, 수리아내전의 장기화, 리비아정권의 붕괴후 무정부상태의 지속, 그로 인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의 피난민사태 등은 미국이 일으킨 《반테로전》으로 말미암아 산생된것이라고 까밝혔다.

오늘의 사태는 미국이야말로 온 지구를 피로 물들인 잔인무도한 살인마, 정화과괴의 원흉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

ㄱ-61159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